朝鮮日報 夕刊 二十日(火) 本紙夕刊十二面

事態는 最後的段階에!

國府의 回答內容은 挑戰的侮日의 暴露

萬事休矣! 挽回絕望

【南京十九日發同盟】十九日 午後四時 董道寧으로부터 日高參事官에 手交한 十七日의 我警告에 對한 支那側의 回答은 我國의要求를 全面的으로 强硬히 反駁한 不誠意를 極한것으로 『中央軍의 軍事行動은 日本軍의 北支增兵에 對한 當然한 自衛手段이라』하야 中央軍의 北支進出을 確認辯護하고 그우에 第二十九軍의 挑戰行爲로 危險에 暴露된 日本居留民權益의 現地保護를 爲하야 또는 少數의 駐屯軍增援을 爲하야 自衛上派遣된日本軍의 撤退를 求하는等 모든 點에 對하야 逆襲的態度를 取할뿐아니라 現地約定도 中央政府의 承認을 得함을 要한다고 主張한 우에 北支駐屯軍과 冀察政權과의間에서 約諾實行進展中에 同約諾을 否認하는 態度를 取하야 我『現地當局間의 約諾實行을 妨害하지말라』는 警告를 完全히無視하고 挑戰的言動을 卽時 停止하라는 要求에 反할뿐아니라 오히려 挑戰的態度를 取하엿슴은 國民政府의 時局에 對한 認識不足과 不誠意를 暴露한것이다 따라서 時局은 이미 挽回할수업는 極點에 達하엿다고 觀測하게 되엿다 그리고 最後로 國際裁判에 呼訴하려함은 支那側이 列國의 同情으로 時局을 有利하게 解決하려는 意向이 窺視되여 支那側의 國際的動向에 關한 奸策이 誤謬된것을 暴露하는것이다

射擊! 又射擊!

北平天津間軍用電線切斷

【北平十九日發同盟】十九日午後五時頃 山崎隊長은 一文字山上에서 幹部將校에 對하야 戰時配備說明中 宛平縣城 東南角의 城壁上으로부터 射擊을바더 大隊部에 貫通銃傷을 受하엿다 同九時半에 이르러 또다시 支那軍은 蘆溝橋下로부터 我軍에向하야 迫擊砲彈二發을 發射하엿는데 砲彈은 五里店西方 森林中에 落下하엿다 幸히 我方에 損害는 업섯스나 거듭하는 支那軍의 不法行爲에 我軍의憤慨는 極에達하엿다

【天津十九日發同盟】蘆溝橋附近에서新陣地를 構築하고잇는 支那兵은 十九日午後五時頃 不法하게도 我警備部隊에 突然猛射를하엿다 今回如此히거듭한 支那側의不法行爲에 我軍은 極度로緊張하게되어 一觸卽發의 危機에直面하게되엿다

【北平十九日發同盟】十九日午後七時頃北平、天津間의 軍用電話線이 支那軍때문에 切斷되엿스므로 我軍은곳 現地에 向하야 修理에 着手하엿다 軍用電話線의存在는 北淸事變最終議定書의 列國駐兵權의 主要한理由로서 北平、天津、山海關의 交通連絡을 確保하는 重要項目의하나이다

武力行使업시는 事件解決은絕望

久納朝鮮軍參謀長談

久納朝鮮軍參謀長은 廿日午前十時에 北支問題에 對해 出入記者團에對하야 如左한 談話를 發表하엿다

事變은 요지음 數日來 表面少康을 保今하고잇는듯하나 事實은 바로 險惡하여왓다。現地의 和平交涉의 進展과 南京에서의 折衝狀況은 모두 支那側의 誠意를 볼만한것이업고 一方에잇서서는 商震部隊와 萬福麟等의 中央軍이 續續北上하야 河北省에까지 進入하엿스므로 梅津 何應欽協定은 完全히 蹂躪되엿셈이다。帝國政府는 지난번 聲明에 따러 當局는 斷乎한 決意를 가지고잇스므로 我等은 國民一致로 時局의 徹底的解決을 지도록 覺悟하지안흐면아니된다。半島國民諸君이 去般以來 軍에보여준 絕對한支持와 激勵에 對하야는 我等은中心으로 謝意를表하는바이다 本來本事變은 그由來가 極히기픈바 武力行事가업시는 急速한解決은 지을수업스리라고생각하지안흐면 아니된다。國民은今後 一層時艱에 際하야 노피發揮되고잇는 內鮮一如의鞏固한團結을 더욱强化하야 銃後의後援에 寄與하는바잇기를마지안는同時에 充分한當局의所信斷行에 힘잇게支援하여주기바라는바이다

英國駐屯軍(山海關) 天津에集結開始

【香港二十日發同盟】英國駐支派遣司令部入電=山海關駐屯의 英國軍은 居留民保護를爲하야 一少隊를 殘留하고 全部天津에 集結을 開始하엿다

五相會議=重大會議를마치고 寫眞은 右로부터 米內海相、廣田外相、馬場內相、賀屋藏相、杉山陸相=於首相官邸

國府軍當局 南郊保定集結確認

【南京二十日發同盟】國民政府軍當局 孫連仲이引率한 三十師及 第三十九師等 中央軍南進部隊가河北省保定에 十九日集結을 마치엇다는것을 確認하엿다

全責任은南京에

政府、中外에聲明(二十日午前一時半發表)

【東京電話同盟】支那側의不誠意無反省으로 北支事變은 마침내 重大危機에 直面하게되엿는데 外務省은 二十日午前一時半 左와如히 帝國政府의 聲明을 中外에發表하엿다。

七月十七日 日高代理大使로부터 南京政府에對하야 申請한 要旨는

一、現地解決의 履行을 妨害하지말라

二、排日的行動을 一切停止시키라

는 二點인데 昨十九日 南京政府의 右에對한 回答은大略

一、日支兩軍의 同時撤退

二、外交交涉에依한解決

三、現地解決案은 南京政府의許可를要함

四、南京政府는 直接交涉 斡旋協定乃至 仲裁를 受諾할用意잇다

는四點인바 右는要컨대 我方의 申請에對한 回答이라고는認定할수업다 大體로

一、今回事變이 發端한것은 支那側의 不法射擊에 依한것으로 事件의責任은 모도支那側에잇다 모름직이 不法을 反省하고 兵을撤收하여야 비로소 事件이圓滿히 解決하게될것이다 그런데 同時撤退라는것은 진수업는 責任을 我方에 轉嫁하고저하는 策略에 不外한것이오 그뿐만아니라 現地의 兩軍協定의 約에 背反하고 我撤收部隊에對하야 我方에 多數의 死傷者를 發生케한것은 我方은 支那側의 同時撤退의 要求는 全然承認할수가업다 그런데

二、支那側이 二十數萬의 大軍을 北支에 集結하야 平津의 我小部隊및 居留民에對하야 一擧殲滅의 姿勢를 取하엿기때문에 政府는 드디여 派兵의 閣議를 決定한것으로서 이는 全然 自衛權의 發動이다 그러나 我方은 아직도 隱忍自重하야 支那側의 反省에 一縷의 希望을가지고 派兵은 應召部隊만으로하야 內地部隊는 只今아직內地에 머물게하엿다 그런데 支那側은 大軍을 北支에集結하야서 自衛云云함은 詭辯을 弄함도 甚하다할것이다

三、冀察政務委員會는 他地方에 보지못하는 特殊的大權限의 政治形態로서 從來幾多의 地方的交涉을 行하여왓스며 南京政府도 敢히 이에 容喙하지 못하엿섯는데 今日忽然히 冀察政權과의 諸協定에 對하야 그承認을 主張함과 가튼것은 卽 새로事端을 構하야 事件의 圓滿解決을 阻害하려는것이오 또 事態惡化의 原因은 南京政府가 現地協定에 背하야 優越中央軍을 北上시킨 事實에잇다 따라서 南京政府에서 斷然反省하지안흐면 事件의 收拾은 全然絕望케될것이다

在南京大使館及 總領事館員等撤回

【南京二十日發同盟】時局의 重大化에 鑑하야 二十日 在南京大使館及 總領事館員家族은 撤退하기로 決定하엿다

外務省重大協議

【東京電話同盟】廣田外相은 二十日午前十時 許世英大使와 會見한後 官邸에 堀內次官 東亞局長을 招致하고 許大使와의 會見內容及 南京側의態度에 關하야 重大協議를 行한後 閣議에 臨하엿다

抗日氣勢白熱化

【上海二十日發同盟】北支事變에 對한 蔣介石의 演說及外交部로부터 我方에對한 回答等의記事는 二十日付新聞에 大大的으로 報道되는同時에 支那一般民衆의 抗日氣勢도 이를契機로 一層倍加하야 日支의 全面的抗爭은 바야흐로 避할수업다는感을 기피하엿다 上海에서도 昨十九日十五民衆團體代表者 五十餘名이 總商會에서 會長王曉籟主席 司會下에 上海의 各界抗日後援會라는것을 組織하야 大大的으로 抗日運動을 이르키기로 決定하고 今後의運動方法을 考慮하기로되엿는데 爲先 廿九軍及南京政府에 激勵電을發하는同時에 第廿九軍의慰問및 北支의實情을 視察시키기로하엿다

二十日正午以降은 斷乎獨自的行動

中央軍撤退와挑戰行爲不中止하면

【天津廿日發同盟】共產黨의排日運動取締에關한 細目約定은 十九日夜成立되엿고 最後로 남은 問題는 支那軍의 撤退、不法挑戰行爲의 停止로서 萬若支那軍이 反省치안코 依然前線에 軍隊를 集結하고 挑戰行爲를取할때에는 二十日正午以降我方은 斷乎獨自的行動을 取하게될것으로 支那側의 動向은 자못注視되는바이다

重大閣議午後도續開

【東京電話同盟】廿日의 重大閣議는 午前十時半부터 首相官邸에 開會하엿는데 十二日以來 不健康으로 私邸에 籠居中인 近衛首相도 八日만에 出席하고 其他 全閣僚도 出席하야 먼저 杉山陸相으로부터 北支事變에 關하야 各般情勢를 報告하엿고 뒤이어 廣田外相으로부터 同樣外交交涉의經過를 報告하엿다 그리고 各閣僚로부터 北支情況判斷에 對하야 杉山陸相 米內海相 廣田外相等에 對하야 여러가지 質問이 잇섯다 政府로서는 前般 閣議에서 廟議가 一決되엿스므로 廟議決定의 旣定方針에 則하야 그範圍內에서 適切한 措置를 講究하기로되엿는데 今日南京에서 日高參事官이 王外交部長과 會見하엿스므로 右會見의結果를 傳하야 다시閣議를 開하기로 決定 正午一旦休憩하엿다가 午後閣議를續開하고 待機의姿勢로서 北支의 形勢를監視하고잇다

軍當局、動向을注視

【東京電話同盟】二十日의 重大閣議는 正午一旦休憩하고 天津南京의 我現地當局으로부터의重大報告를 기다리고 午後에도 閣議를 續開하기로되엿는데 午後의 閣議는 政府의 最後的態度를決定하는 重大性을 띈것이므로 政府는 右閣議終了後廣田外相又는 風見書記官長談形式으로 政府의 態度를 中外에 闡明하게될것이다

排日取締協定成立

【天津二十日發同盟】駐屯軍司令部發表 七月十一日調印된 協定三項을 實施키爲한 排日運動取締에關한細目協定은 昨十九日午後十一時 橋本參謀長과 二十九軍代表와의間에서 成立되엿다

宋哲元에 最後通告

【北平十九日發同盟】支那駐屯軍은 閉軍과如히 支那軍의不法行爲에對하야 最後的聲明을 發表、이와同時에 北平에서도 午後九時半 松井特務機關長으로부터張祖德秘書를 通하야 宋哲元에게 同樣의通告를하엿다

蘆溝橋中心으로 支那軍配備狀況

【天津十九日發同盟】連日에亘한 支那軍의不法行爲는 마침내 最後의 重大事態에 드러가려하는 이때 蘆溝橋를中心으로한 支那軍의配備狀況은 如左하다

西苑으로부터 蘆溝橋에亘하야 第三十七師 馮治安의主力 南苑에는 第三十八師 張自忠의主力 豐台店에는 鄭大章의 騎兵部隊 또南方으로 永州에는 閻錫山의主力 保定에는 商震、萬福麟의主力

楊村軍用電線切斷

【天津二十日發同盟】二十日午前六時頃 北寧線 楊村附近의 軍用電話線은 全部切斷되여 北平天津間의 連絡은 全然杜絕되엿다 我軍은 目下强行修理中이다

蔣介石近近南京行

【南京二十日發同盟】蔣介石은 事態의 緊迫에 鑑하야 二十一日又는 二十二日 廬山을 出發하야 南京으로 向하기로되엿다

支那各機關 俄然大緊張

【南京十九日發同盟】我方의 警告에對한 外交部의 全面的拒否로 南京의 空氣는 俄然惡化하야 外交、交通、鐵道의 各部와 軍事委員會、軍政部、參謀本部等은 晝夜의 區別이업시 活躍하는 一方 臨時行政院會議는 十九日夜에도 開催되엿고 中央黨部에서도 在京委員의 頻頻한 會合이 잇서 全國省市黨部民衆團體에對한 指令으로 多忙하여 十九日에도 深更에이르러서도 燈火가 煌煌하야 各機關은 何時에라도 最惡의 境遇에備할非常總動員의 體勢를 取하고 잇다 또 最近 支那官憲의 我在留民에 對한 態度도 顯著히 惡化하고 南京의 大中學生은 벌서부터 戰時後援會를 組織하야 十六日부터 十九日까지에 二千五百의 應募者가잇서 首都各界抗敵後援會도 抗敵工作에 大活躍을 繼續하고잇다

大勢推移洞察後 最後的決意確定

行政院會議意見一致

【南京廿日發同盟】國民政府行政院은 十九日外交部의 回答提出前인 午前十時부터 또는提出後의二回에亘하야 會議를 開하고 各部長出席하야 時局에對한 重要한意見을交換하고 銳意對策을 協議하엿는데 各部長은 모다時局解決의鍵은 蔣介石氏의 聲明及外交部로부터 日本大使館에手交한回答에對한 內外各方面의反響及 東京에駐任한 許世英大使의 報告及 廣田外相과의 折衝如何에달녓다고하고 茲一兩日間 時局의 動向을 注視하고 大勢의推移를 見極한後 國民政府로서의 最後的決意를 하기로 意見一致한模樣이다

時局에對한善處

局長會議서 總督注意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二十日午前九時十五分부터 第三會議室에 開催되엿는데 먼저 藤村陸軍御用掛로부터 北支事變의經過狀況에對하야 說明이잇섯고 뒤이어 吉田鐵道、山田遞信兩局長以下各局長으로부터 時局에關한 所管事務의 報告가잇섯는데 最後로 南總督으로부터 時局에關한 半島人의 心得으로서 左의 諸注意가잇섯고 同十時五十分散會하엿다

一、時局에關한 朝鮮의指導方針은 內鮮一體의 實을擧함에잇는데 特히 左의 事項을注意할것이다

一、朝鮮人이 積極的으로 協力하려는데 이를拒絕하며 或은 朝鮮人에 賦與된 分擔事務를 明白히認識치못하고 協力하려는意向을 取入치안는 傾向이 잇는듯이 들리는데 이는關係方面에서 充分히생각하야 朝鮮人의協力은 欣然히 歡迎하여야할것이다

一、時局에關한 會合送迎等에際하야 內鮮人의 差別待遇를하는 言動은 絕無하도록 注意하기바란다

一、今回事變을 通하야 諸外國의論調를 一般에 周知시키고 國際的認識을 增大시킴이重要하다 卽獨伊는 東洋의것은東洋人에맛긴다고하고 米國도無益한干涉을 行하지안는다 하며 英國도 單獨으로 容喙할意思는 全然업다한다 이것이 歐米諸國의與論인바 歐米依存觀念은 全然東洋人으로부터 解消할것으로 一部의人士의蒙을啓하도록 努力할것이다

一、今回事變이 자칫하면 祝日氣分으로 들쓰게하는感이잇는데 沈着히 內鮮一體의實을擧하야 善處할것이다

辭令

新任地	現任地	氏名
京城鐵道郵便局長	監理課	森田 守正
濟州〃	蔚山	小菅井 政
蔚山〃	釜山	行武 房吉
鐵原〃	三峰	塚田房治郎
三峰〃	釜山	八尋 茂雄
宣川〃	中江鎭	三浦四方藏
中江鎭〃	新義州	松浦 長一
慶興〃	穩城	坂元 義兼
西大門〃	天安	小澤 武
天安〃	木浦	福山安治郎
馬山〃	光州	合田 公久
光州〃	監理課	衛藤 克己
金泉〃	淸州	高田 利福
淸州〃	淸津	小林 雄一
開城〃	平壤	前田 豊吉
雄基〃	載寧	末永 虎熊
載寧〃	京城	羅 益綺
尙州〃	茂山	富永 末滿
茂山〃	淸津	谷代 四郎
公州〃	釜山貯金管理所	淸水 亮吉
安東〃	南原	小池定次郎
南原〃	仁川	須藤松次郎
三長〃	惠山鎭	常川淺次郎
新阿山〃	北靑	大塚保三郎
浦項〃	遞信吏員養成所	內山田季吉
木浦保險課長	京城	二木 三男
淸津遞信課長	京城	海方 勝吉
平壤郵便課長	京城	池田 門宮
淸津監督係長	平壤	後藤 末藏
元山		鎌谷 正
命京城中央電話局庶務課長	公州	鈴木吉三郎
命元山電信課長	京城貯金管理所	鈴里 新一
命釜山振替貯金課長	仁川	小田 英重
命仁川通信課長	保險業務課	田中 正一
命仁川保險課長	馬山	浦 登
命遞信吏員養成所敎務係長	監理課	高本 幸久
命監理課監督係長	監理課	鈴木喜久保
命監理課圖書係長	遞信養成所	淸永 又藏
命遞信吏員養成所庶務係長	浦項	赤澤仁三郎

命淸州局長心得兼務 開城局長 片山 鎌次

命京城郵便局臨時在勤(各通) 西大門局長 庄子 十二 / 京城鐵道局長 松原 三郎 / 金泉局長 阿部 當正 / 尙州局長 池田 重義 / 濟州局長 靑木勸次郎 / 安東局長 神之門萬次郎

命釜山郵便局臨時在勤(各通) 三長局長 熊谷 恒外 / 慶興局長 松井 繁八 / 雄基局長 橋詰 素男 / 新阿山局長 須藤 四郎 / 鐵原局長 內田 役一

命元山郵便局臨時在勤(各通) 宣川局長 堀 武一郎

命平壤郵便局臨時在勤 京城中央電話局庶務課長 關口 貞三

命京城中央電話局臨時在勤 遞信吏員養成所 小林 辰吉 / 同 興津 建

命當分間遞信吏員養成所勤務(各通)

八面鋒

◇大城戶南京駐在武官의 通告에對하야 外交部亞洲司長第一課長董道寧의回答은 中央中心主義로 現地解決을否認。

◇北上部隊를 撤退하라는 多少時의 最後的勸告에 對하야 南京政府는 應戰準備로應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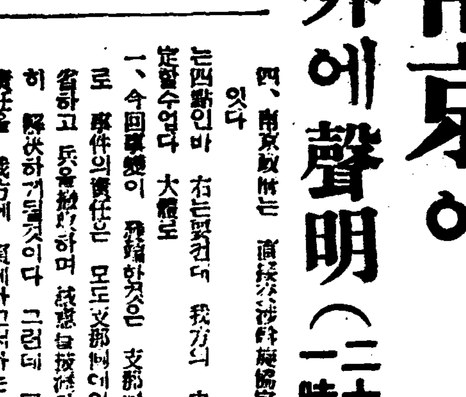
◇이리하야 駐屯軍은 十九日夜에이르러 自衛權發動을 決意하고 重大聲明을發表。

◇急하다 急하다하든 北支의風雲은 바야흐로 急을告하고잇다。

◇陰鬱한日氣가 朝夕으로 晴雨不測케하니 明朗한日氣는 어느때에나 오랴는고。

不再錄號外發行 北支事變에關한 不再錄號外를 今廿日朝에 發行하엿습니다

熔接機界의 覇王
濱田式電弧熔接機
故障絕無 電力節約 ...
型錄進呈 大好評



五金商會電氣部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珊篤尼涅菓子)
무서운蛔虫을驅除합시다! 蛔虫은每日食用하는野菜김치等에附着해서人體內에드러가서體內에서生長해서發熱腹痛嘔吐食血夜泣其他各種病의原因이됨니다特히小兒는蛔虫에걸리기쉬운故로每週日曜日에는예전부터信用잇고잘듯는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服用식혀서이무서운蛔虫을驅除하고애기네를健康하게길러주십시요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고무신은거북선
京城東大門外서울고무工業社 (電光一一五九)

문둥병엔 神脈丸
○癩患者여服用하라!!
○新生의기쁨을어드리라
○全治된感謝狀積如泰山
大明堂製藥合資會社 江原道江陵邑

製造卸販賣 國華マーク商會 東京市淺草區藏前一丁目二番地ノ九

日本勸業證券株式會社京城支店
本店 東京 日本勸業銀行構內
福合債券賣出 德組 簡易貸付 69.85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二十八番地 振替京城二九七 電話本局四〇五四

교통두절된 살고지다리(上)와 부근침수된 가옥(下)

中部朝鮮一帶에豪雨
各地交通網被害不少

련일내리는비로 중부지방을비롯하야 각지에수해가 상당히잇는모양인데 이십일 경무국에도착한 충북、강원도、경북의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

▲忠北道＝충북도는 십구일야래의호우로 이십일아침까지에청주(淸州)에는 이백팔미리나 내리엇는데 이때문에 하천이범람하여 충북선철도결괴한곳이 이십이개소에 그중륙개소는 피해가상당히크며 철도는 조치원(鳥致院)충주(忠州)간이 전부 불통이되어잇는데 이십일 오후경에나복구될모양이다 또 자동차교통도 여러곳이 두절되엇는데청주 조치원간 옥천(沃川) 영동(永同)간을 중심으로 각선이모두불통이다 그러고 청주읍내에도일부침수하야 마루밋까지 침수한것이 오십호에 일백오십명의피난민에는 림시식사를 대어고잇다

▲慶北道＝십구일오전십시경부터 약한시간동안 상주군함창면(尙州郡咸昌面)에 국부적으로호우가퍼부어 경북선철도(金泉에서 오십삼키로지점) 선로가 약십미돌침수 결괴되여 렬차가 일시중지되엿다

▲江原道＝십팔일부터의 호우로 강원도내의 소하천이 대범람하야 도내각지에 통하는자동차교통이거의 두절되엿다 불통되곳은 다음과갓다

春川—京城 京城—橫城 春川—麟蹄 江陵—蔚珍 春川—華川 洪城—京城 淮陽—洗浦

【忠州支局電話】 충주에도 이십일아침까지 칠십삼『미리』의비가나려서 조치원—충주(鳥致院—忠州)사이에는 칠십『미리』가량의철도선로가 곤허저서 교통이 끈허젓다 그리고 충주읍부터 단양(丹陽)제천(堤川)등지로가는교통도 거지반 두절되엿다

清州、忠州를中心으로
烏致院間交通杜絶
家屋의全半潰도多數

【淸州支局電話】 청주지방은 십구일부터 이십일새벽까지 사이에 큰비가계속해나려서 우량이백팔『미리』오십칠을 보이고잇는데 이에따러서 청주—조치원(淸州—鳥致院)사이의 충북선(忠北線)은 여섯군데、청주—충주(忠州)사이는 열여섯군데나 각각길이상해서 교통두절이되엿고 또 청주—조치원사이외에는 자동차교통도 전혀두절되엿다 그리고 사주면사직리(四州面社稷里)에는 다음과가튼 피해가생겻다—

▲全潰十五戶 ▲半潰四戶 ▲田畓埋沒約千町步 浸水十六戶

淸州邑東町 ▲浸水二十餘戶

同 石橋町 ▲浸水十五戶

漢江도刻刻增水
箭串橋를中心京城軌道車不通
鐵橋下水位七米七〇

▲수일동안 계속하야 내리는 장마비로 말미아마 한강(漢江)은 점점증수되여가고잇는데 이십일오전아홉시 현재로 한강상류춘천(春川)이사메돌이상、가평(加平)이오메돌、려주(驪州)가륙메돌、한강교(漢江橋)가칠메돌으로 증수되엇는데 오후두시 광장교(廣壯橋)는 칠메돌삼십이고 뚝섬(纛島)은 칠메돌사십이며 오후한시 현재 한강교가 칠메돌칠십이고 옥천(?)은 팔메돌십오에 달하엿다 아직도 물은줄어가지안코 더불어가고잇다

▲경기도광주(廣州)관하의 경안천(京安川)도선장은 이십일아침부터 물이너머 교통이 끈허젓고 련천(漣川)관내의 림진강(臨津江)도선장도 범람하야 교통이 두절되엿다

▲부외뚝섬방면 한강은 십구일밤부터 물이불기 시작하야살고지다리(箭串橋)도 물이넘어이십일아침부터 모든교통은 두절되엿고 경성궤도선도 이다리를 사이에 두고 량쪽 에서 되도라 운전을 하고 잇스며 물은 아직도 조금씩불는중이므로 언제나 복구될런지 알수업고 간신히 도선으로 련락하고잇는중이다 (午後一時半記)

▲부내 현석정(玄石町)주재소관내안 토정정(土亭町)은 주택의마루아래까지 침수된집이 삼호、룡강정(龍江町)은 점호외 마루아래까지 삼호、창전정(倉前町)은가오마루아래까지일호、점포일호、신정정(新井町)은 점호만사호、뚝섬은 삼호、한강정은일호라하나 아직까지 큰피해는업다

▲호우로말미암아 부내동대문서관내에는

▲纛島新里地 三戶

▲高陽郡 三戶

…물게여서집의침수가옥을 내엿스며 아직 한강물이 불고잇슴으로 경계중이다(午後二時記)

朝鐵黃海線開通

십구일부터 불통중이든 조철황해선(黃海線)사리원(沙里院)송화온천(松禾溫泉)사이는 이십일부터개통되엿고 송화온천으로부터장연(長淵)방면으로는 아직불통중에잇다한다

霖雨는二三日繼續
比律賓附近颱風이發生北進中

【仁川】 십팔일부터 나리는비는 또다시 장마로시작하야 이십일현재의 기압배치로보드라도 좀처럼 날이들것갓지안타는바 현재기압은 본방동북해상에 칠백륙십사『미리』의 고기압이잇고 청도(靑島)동방에칠백오십사『미리』의저기압이 잇슬뿐아니라중강진(中江鎭)으로부터 동방으로 불연속선(不連續線)이 걸처잇서당분간개일 기맥이 보이지안코또 한동경(東經)일백삼십일도 북위(北緯)십오도 비률빈(比律賓)근방에 칠백오십『미리』의 태풍(颱風)이 동북진하고잇다는바각지우량은 다음과갓다한다

▲新義州一미리▲平壤一미리▲仁川一二미리▲中江鎭三五미리▲全州三七미리▲木浦一미리▲元山二미리▲江陵二四미리▲大邱七미리▲釜山二二미리

測候所所在地以外雨量

驪州三五미리 聞慶九六미리 義城九一미리 榮州四二미리 群山二八미리 淸州三四미리 公州四八미리 鳥致院四八미리 報恩一一三미리 鐵川三五미리 麟蹄六四미리 廣州五八미리 驪州四九미리 忠州五二미리 丹陽八九미리 寧越三八미리 旌善七五미리 利川四八미리 長湖院五八미리 原州七九미리 橫城七七미리 槐山四八미리 堤川五一미리 平昌七八미리 加平一〇〇미리 春川一三三미리 華川一五〇 淮陽一七一미리 洪川七七미리 麟路二六미리 長湍七二미리 伊川一四九미리 漣川一四九미리 鐵原一四三미리 金化一三一미리 遂安一五九미리 白川八三미리 南州一四九미리 金川一五一미리 新溪一〇四미리 載寧一〇八미리 寧遠一一五미리 新倉四一미리 黃州八三미리 谷山一二九미리 陽德一四二미리 成川一八〇미리 安州一〇二미리 北院一〇五미리 雲山九四미리 熙川四五미리 禮山四五미리 溫泉里二九미리 瑞山三四미리 水原三六미리 江華五五미리 三陟三四미리 高城五七미리 通川八六미리 延安六九미리 海州八八미리 馬山一六미리 長淵一五八미리 松禾一三〇미리 信川一〇五미리 鎭南浦一〇三미리 殷栗八二미리 安岳一三六미리 永柔一〇九미리 定州八三미리 龍山四二미리 泰川一〇二미리 寧興一〇八미리 咸興一六八미리 三防一四三미리 新院一二九미리 瑞興一二二미리

全羅線一部不通
五柳獒樹間에沙汰로

십구일밤의 큰비로 말미암아 전라선(全羅線) 일대는 하천이 너머서 이십일오전세시오십분에 관촌(館村)자갈채취선(採取線)은 물에 잠겨서 길이 약이백림방면돌가량유실되엿고 이십일오전다섯시에 오류(五柳)오수(獒樹)사이에서 산에서 쏘다저나리는 물로말미암아 길어기퍼 약일미돌반가량 류실되여 렬차가 불통되게되엿스므로 현장에는 도보로 련락하는중이라한다 남원보선구(南原保線區)에서는 이날오전다섯시십오분에 구원렬차를 내여 인부 백명을 태워가지고 현장으로가서 복구공사를 하는중인데 어쩌면 이날안으로 개통될 모양이라한다

非常時局에對備
國境警備陣擴充
機關銃探照燈監視所等으로萬全을期約
卄九萬圓을特別議會에要求

중대비상시국에 대처하는 치안유지의 만전을기하는 경비는 실로 삼엄하야 철통가티 완비되여잇다 경무국에서는 각도에 순사교습생출신 약륙백명을 배차하여 특히 경찰관강습생 약이백명에대하야 졸업기를 개월을 당겨서 졸업식혀가지고 역시각도에 배치하야 제일선에서 비상시국치안유지에 대비하도록하엿는데 이에대한 림시특별경비가 위선약십만원을 요하게됨으로 경무국에서는 그예산을방금급히 편성중이다 그예산의지출에대하야는 제이예비금 혹은 책임지출로 할모양이라한다

이와동시에 순전히 국경경비확충에대한 예산 이십구만여천원을 오는이십칠일에 개막되는 특별의회에추가예산으로제출하기로되엿다

이국경경비확충에대한 내용인즉 약삼백명의경찰관을 증원하야 국경각지에배치하며 기관총과탐조등(探照燈)을구입하야 필요한대안각주재소에 비치하야만일의경우에 대비하는외에 각요소요소에 감시소(監視所)를 신설하야 국경경비진을 철통가티 완비강화하는것이다

盛況이룬時局大會
雨中임을不拘二千餘名參集
即席에서宣言을發表

국방의회(國防義會)주최의 시국대회는 예정과가티 이십일오후일곱시부터 조선신궁압 광장에서 성대하게열렷는바 이날아침부터 내리는폭우를 무릅쓰고참집한 재향군인회외에 백여단체 이천여명이모혀 먼저국기를게양한후 국가합창으로 식은개최되엿다 전전(前田)의원장이하옥관(玉串)을 드리고 안배(安倍)분회장이 이러서 다음과가튼선언을 랑독하야 만장일치가결한후 내각총리대신 륙해군대신주저주둔군사령관에게 시국대회명의로 선언이엇슨것을 타전하기로하고 만세삼창을한후 동일폐회하엿다 (사진은 대회장)

天業을恢弘하고 皇道를宣布하야써 世界의平和에貢獻하고 人類福祉를增進코저함은 肇國以來我帝國의國是로 萬古不易의鐵則이다 그런데 支那는 늘帝國의誠意를無視하고 侮我抗我背信行爲를一再에不止하고 畢竟今次事變을惹起함에至하엿슴은 甚히遺憾된바이다

我帝國政府는 國民政府의反省을求하야 彼로하여금 翻然其非違를覺醒케하야써 我拔本的經綸과大乘的理想을達成코저 皇國本來의使命에鑑하야 斷乎重大決意를聲明한것은 當然한措置로 吾人은 衷心支持를呼號하는바다

吾人은 時局을正視하고 國論의統一과强化에任하야 擧國一體國策의貫徹에邁進할것을期함

右宣言함

昭和十二年七月二十日 時局大會

兩氏가獻金
土耳其人

부내에서 양복장사를하고잇는 토이기(土耳其)사람『무로뮈』씨등수명은 돈이백오십원을 모어가지고 이십일오전에 조선군사령부애국부를 차저가서 바쳣스며 역시 토이기사람『아마그무쯔무』외삼인은 십구일에 돈오십원을 모아가지고 바첫다한다

李鍾萬氏
千圓獻金

북지풍운이 가열가을로 급박하아가는이때 부내종로대동광업회사(大同鑛業)사장 리종만(李鍾萬)씨는 십구일 애국부인회조선본부(愛國婦人會朝鮮本部)를차저가 황군위문품대로 금일천원을 기탁하얏슴으로 계원은감격하야 그수속을취하엿다고한다

府敎育會員
武運長久祈願

경성부교육회 회원일천사백명은 이십일일 오전여섯시반에 조선신궁압해 참집하야 국위선양과황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고 아울러 교육자 정신을 진작식히기로 되엿다한다

時局講演
今夜로迫頭

긔보=조선사회교화단체 련합회(朝鮮社會敎化團體聯合會)주최인 북지사변시국대응의 대강연회는 마침내 금이십일과 명이십일일 량일로 림박하엿는데 그강사와 강연장소는 다음과갓다

七月二十日午後七時半 京城師範學校講堂

朝鮮軍參謀 深堀 中佐

朝鮮新聞社會部長 野崎 眞三

大東民友會顧問 李覺鍾

同日同時 京城女子高普校講堂

中央基督敎靑年會長 尹致昊

鮮滿拓殖監事 高元勳

大東民友會理事 車載貞

七月二十一日午後七時半 府民館大講堂

京畿道會議員 曺秉相

朝鮮日報主筆 徐椿

金日成崔賢一派
滿軍武裝을解除
武器彈藥多數를奪去

십구일 경무국에들어온 보고에의하면 평북대안에산재한 비적은 요지음대담한행동을 시작하야 십사일에는 림강현로파구(臨江縣老坡口)에잇는 만주군병사를 습격하야 적지안흔손해를 입혓스며 이어서 십오일밤열한시경에는 다시그곳에서 약오십리떨어저잇는 이도구대양차(二道溝大羊岔)에 주둔하얏든 만주군일개련(一個連)을 김일성(金日成)최현(崔賢)등의 합류비약일백여명이 습격하야장시간 격전을하엿스나 비적은만주군 무장을해제하고 기관총을 비롯하야 전사자십수명을내엿고 무장해제를당하야 무기탄약등다수를 약탈당하엿스나 비적측에도 다대한손해를입혓다고한다

省齋育英會
給與生十名決定

성재육영회(省齋育英會)에서는 금년도급여생열명을 전형하고저 지난십칠일오후두시부터 부민관에서 섬사회를열고 신중한심사를한후 십구일오후네시에는 익선정(益善町)삼십사번지 그회사무소에서 리사회를연결과 다음과가티 결정하엿다

▲城大法科一年 [illegible]東鶴 ▲京城高商二年 許東 ▲京城高工土木科一年 宋在弘 ▲世專二年 楊貞燮 ▲延專數物科三年 金斗顯 ▲普專商科二年 卞禮寬 ▲同一年 孫基禎 ▲中央大學法學部一年 安觀守 ▲武藏野音樂學校二年 金昌洛 ▲梨專文科一年 申辰淳

天氣豫報

概況 高氣壓은 本州南東海上으로부터 朝鮮에따지고잇스나 黃海는 氣壓配置가 不安定이다 또 北海道 千島에도 小低氣壓이잇고 南洋方面에는 颱風이잇스며 滿洲는 不明이다 滿洲는 흐리고 朝鮮도흐리고 北部는 비가오고 日本內地는 太平洋側은 개이고 日本海側은 흐리고 東北地方도흐리며 北海道는 비가오고잇다

豫報 京城地方은 今夜는흐리고 小雨模樣이며 明日은흐리고 京畿道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六度六
同 最低	二二度七
今朝最低	二二度二
今日正午	二七度二

맛잇는 マラソン王

運動界集會·人事

▲魯炳賢(殖銀庭球選手)그동안身病으로 鄕里宣川에서 靜養中이든바 完快하야 二十日入京、人事次來社

스포ー츠

西朝鮮遠征
基靑籠球部
明日、京城驛出發

中央基督敎靑年會學校 籠球部에서는 今般夏休暇를 利用하야西朝鮮地方으로 遠征할터이라는데 一行은 明二十一日午前八時十五分 京城驛發列車로 發程하기로되엿스며 轉戰日程은다음과갓다

▲二十一日=對 開城松都高普

▲二十二日=對 沙里院農業學校

▲二十三日=對 全沙里院軍

▲二十五日=對 平壤高普

▲二十七日=對 定州五山高普

▲二十八日=對 宣川信聖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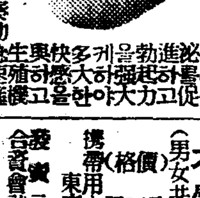
▲二十九日=對 車輦館普

▲三十日=對 新義州商業學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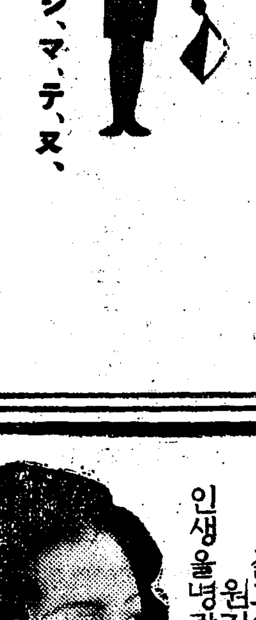
▲三十一日=對 安東縣大陸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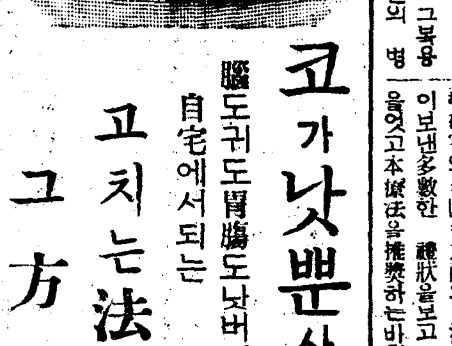
世界一流氷上選手
朝鮮來訪決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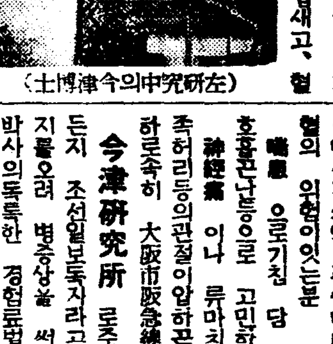
冬季올림픽札幌開催에對한 諸問題와 氷上競技向上策을 討議決定할 日本스케ー트聯盟臨時代表委員會는 十七日午後一時부터 丸之內中央亭에서열린바 海外選手招聘에關하야서는滿洲氷上競技聯盟과 日本스케ー트聯盟이積極的으로協力하야 今年末十二月二十日頃부터 二月十日까지約五十日間日本滯在豫定으로世界스피드스케ー트界의巨人諸威의『바랑그루ー드』를監督으로 한『메리ー젠』『엥그네스타징』『스태스루ー드』等과女子스피ー드界의女王인 諸威의『닐센』孃을招聘하기로되엿스며 이와同時에『페아ー스케ー트』의第一人者『빠이아!하파ー』組(獨逸)를 招聘할것과 뒤떠러저 加奈陀의키릴도 招聘하기로되엿는데 朝鮮에서도 前記海外選手들의 模範競技會를開催하기로 決定되엿다 그리고明年度 全日本氷上選手權大會는 一月十四、十六日사이에 札幌에서開催하기로되엿다 前記諸威選手들이 冬季올림픽 開催地問題에對한 感情問題로 招聘에 應하지안코면 米國一流選手를 招聘할터이라하며 一九四〇年의 冬季올림픽은 二月初부터 十一日間에行할豫定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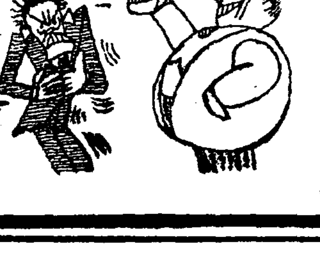

陰萎·勃起不良·不感症
中井醫學博士創製·五大博士推奬
最新發明局○塗布藥 セーブレビン (세부레빈)
●本劑는、芳香性크ー림狀으로局部에少量씩塗布함으로써 快爽한流血을惹起하야 性호르몬의分泌를促進하고 勃起力을强大하게하야 快感을多大하게함
能을强精케한最新發明藥이다。
適應症 陰萎·勃起不良·性感增進·生殖器短小·不感症·分泌減少
(男女共用) 價格
發賣元 合資會社 天醫堂
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大新井藥房
●說明書實驗報告書無代進呈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釜山府草梁町
金千壽商店製粉部
電話局二八六番 振替釜山三三五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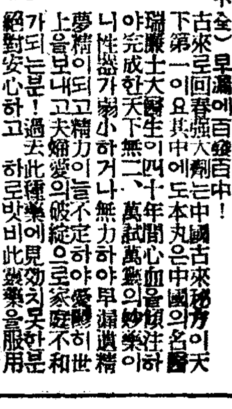

ン、ジ、マ、テ、ヌ、
ス、グ、タ、ベ、ル、
ボーイ菓子
スカウト
菓子店にあり 5センです
おそへものはステキですよ


코가낫븐사람
고치는法과 그方法
腦도귀도胃腸도낫버진다 自宅에서되는
(圖說蓄膿의手術)
코가메고 코물이밤낫흐른다 냄새를 모른다 黃色코물이 咽喉에까지 흐르고 乾燥하야 시나며 鼻孔과口中이 냄새가몹시 밤낫머리가 무겁고 記憶力과思考力이 漸漸衰한다 이러한症狀을 가지고잇는 사람은 코병에 들리엇다는 證據이니 이러한사람은 于先自己의 코병이 어떠한 病인가를 確實이알어가지고 곳치는 方法을 알어두는것이 곳치는데의 第一捷徑이다 누구든지알라고하는 사람은 이것을 說明한鼻科講座當所에서는 冊을藥書에다 名을 記入申込하면 無代進呈하니 주저말고 申込하여라
埼玉縣大宮町(氷川公園)
東京鼻科藥房研究所


(左研究中의今津博士)
喘息·神經痛
中風·高血壓
今津博士의훌륭한研究
不治아니다
어병으로、담배、화류병、위장병 당뇨병、신장염감기、대한등으로 신체를기르는동에한혈액이탁하야 순환이낫버지고、신경이쳐해를바 동으로생기는것인데 원인을만드는더러운혈액을정화하고동맥경화의원인을업새고、혈압을정조하야순환을조케하야神經의장해를업새면낫는다 결코못곳치는병이 아님을다수실험으로확신을어든중 한방으로유명한今津博士는귀중한 식물호르몬에서강력한 정혈제를창제하야 그복용 과리기신 또는 이마즈민의 병용으로곳치기어려운 병원인부터 낫게하야대단히기뻐한다
中風에걸녀는분 현구들으로괴로워하는분 고혈압、동맥경화로 견비통 이명、두통、현기、변비 불면신경쇠약 종중마비로 뇌일혈의 위험이잇는분
喘息 으로기침 담 숨가쁨、호흡곤난등으로 고민하는분
神經痛 이나 류마치스로 수족허리등의관절이압하곤난한분은 하루속히
大阪市阪急線三國驛側 今津硏究所 로주저말고오든지 조선일보자라고쓰고 본지를오려 병증상을 써서보내라 박사의독특한 경험료법、양생법 기타 주의사항을 상세하게일러 준다


설사·배알는대는 마음노치말라
소곰잘못해도 곳 설사가나고 腹痛을 이르킨다 몸쓸病이 잘나는夏節에는 어른도 어린이도 全혀 마음노흘수업다 이럴때는 황당히굴지말고 곳 도모산을 服用하시라 또 설사가繼續되야 아모리해도낫지안흔분게도 다른胃腸藥과달흔 效果가잇서 回復이빠르다는것이 特長이다
먹기쉽고 副作用업다 藥店에잇슴
評判の新胃腸藥
도모산 トモサン
急性、慢性の下痢 消化不良·腹痛
十八錠 二〇錢 / 四〇錠 七〇錢 / 二〇〇錠 一圓五〇
東京市日本橋區本町 發賣元 友田合資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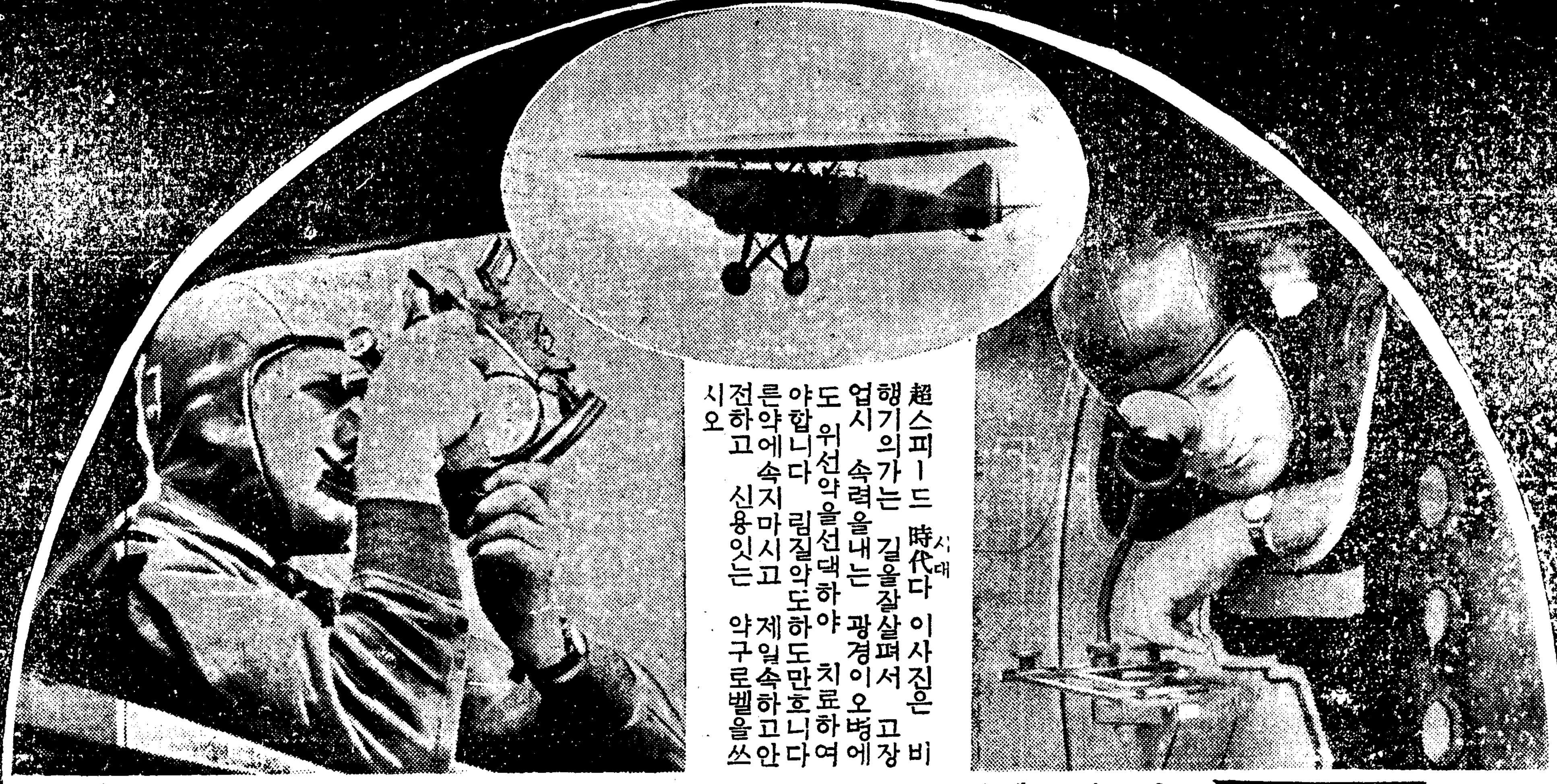
흰머리 白毛 누른머리 赤毛 染
루리하 るり羽
髮は洗はずとも 髮は濕にても 直ぐ染まる
우리녀성은언제까지나 젊고아름답고 원기발자한 인생을 녕량하게보냅시다
전국약점에잇슴


淸導補腎丸
中國名藥 性器強大靈藥
男子性器短小(發育不全) 商報呈
十五日分 三圓 / 三十日分 五圓五〇 / 六十日分 一〇圓〇〇
先金이면送料弊店負擔함
安東縣一番通五丁目 私書函旭橋局十六號
滿蒙特產物商會 振替口座京城二三〇三六番
●注文은必히信用잇는弊店으로하시요

本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頭取 林茂樹
支店 京城南大門、同東大門、同西大門、同本町、水原、大田、永同、開城、延安、平壤

우수한치림약
리베ー루
염려말고 의심말고 꼭한번 시용하시오
五日分 壹圓
竹村製劑所
各藥房에

림질 대하증엔



超스피ー드時代(시대)다 이사진은 비행기의가는 길을잘살펴서 고장업시 속력을내는 광경이오 병에도 위선약을선댁하야 치료하여야합니다 림질약도하도만흐니다른약에속지마시고 제일속하고안전하고 신용잇는 약구로벨을쓰시오

효력최극상 최특등 전세계에서 제일유명한 독일약(헤루미도ー루)도 만히 들엇고세게적 대신 발명한 약제도전보담 만히 더느엇답니다

◇남녀만급성림질、부인적백대하증、남녀냉증、오즘소태、월경 고르지 못한데며 하혈(下血)등으로 별치료를하야 보고별별약을써도 무효하야돈만허비하고 근치안되며 고통하는분은 이것저것주저할것업시안심하고 제일먼저 신발명한 (kurober)구로벨을쓰시오 구로벨은 틀임업는약이다 이러한자신(自信)을 어든결과환자의 안심과신용을 엇기위하야장담하오니안심하시고쓰시오

구로벨의특장

一、약효가강렬하야 여러해된 고질특히 재발한만성림질과 대하증은 물론 림독성으로된방광염고환염 (산송)섭호선염자궁내막염란소염라팔관뇨두협착등에족코

二、이약은다른약과가티 지리하게오래동안먹고만급성간에오래된고질 만성송이라도일주일내로효력을보고

三、림질약치고 위장이안상하는약이업는데구로벨만은조곰도안상하고 다른부작용이조금도업슴으로 위장이약하분이만이먹어도트림하나안난다는 말는효험본여러분의찬송하는것이오 그런데이약이속한리유는다른약을오래쓰게되여 그동안조섭이곤난한소치엿다

(약갑) 완고약성에 십오원・만성에 구원 보통증세오원 지방송료선금십오전 대금인환은 삼십오전

만일부효면 엇더한 책임이든지 집니다

京城西大門電車停留場前(五)제일큰서양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그전신성당약품부)
電話光化門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구로벨 이제일이요

속히구로벨을쓰시고 이런 옥동자를나십시오

◉림질약은 신성당이 독판첫다고그전부터입달닌 사람이면 다ー 말한다하오 (다른약은안그런가)

◉하는수업다결국잘낫는 약이독판칠수박게

◉십여년된고질이나엇다는 감사장이업스면 절대로신용마시오갑싸고화리만코 경품만히주는약은 결국 갑싼칼치자반이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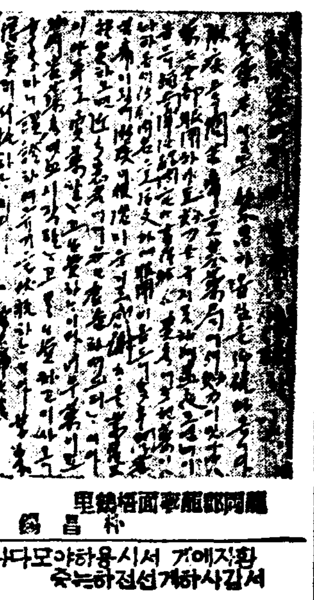
◉당신은하도만히 감사장업는약에속아서이감사장도밋지안켓지오

◉그러나이감사장을위조하면(僞造)즉거짓말로꾸미면사문서위조라고경찰에서야단합니다 그러니 이감사장만은절대로미더주시오

이이는엇지하야 장님이되엿나 림질균이눈에드러가면 눈이멀고 태중에림질대하증에걸니면 눈민아희를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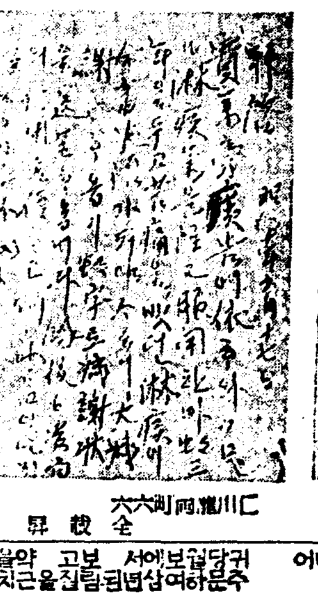
001475

삼년된 림질이 완치되여 매약점까지 게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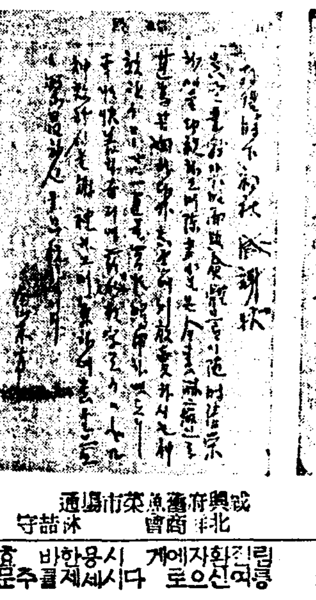
咸興郡龍寧面塔鎭里 朴昌錫

수년된 림질이 완쾌되여 신성당약이라면 다신용하게돼



仁川府花町六六 全枝昇

고통에고통하던 림질이끈 한갑에다나엇다



咸興府舊魚菜市場通 北商會 沐喆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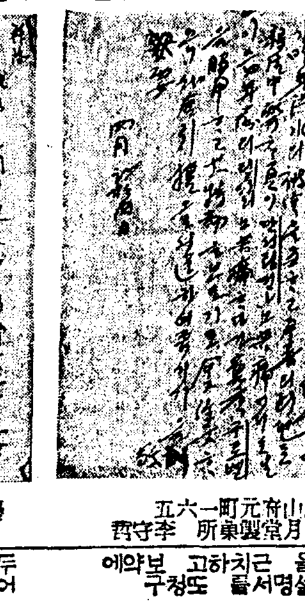
사오개월 고통한림질이 다나아서 친지에게맙고

江原道江陵大正町一五七 平江商店 主 梁才龍

수년된 림질이 일주분으로 측효보와 극력선전중

滿洲安東縣七番通八ノ二 孫益遠

수년전 신효보고 만성림질에고통한점원 맘으로도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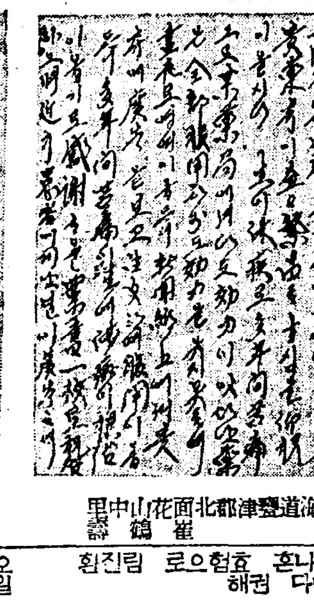


馬山府元町一六五 水月堂製菓所 李守哲

작년에는 체증에 경오롤금춘에는 림질을 구로벨노 아주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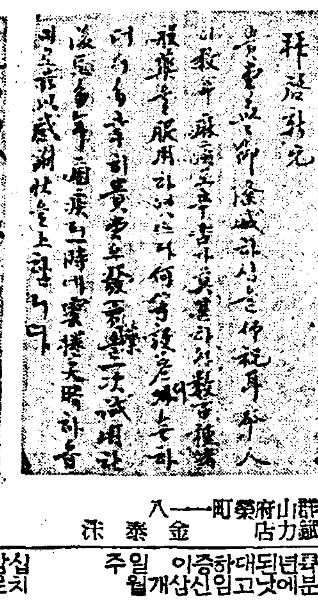
慶南咸陽郡咸陽面下洞 閔泳圭

약방에서 조타는약으로 안낫던림질이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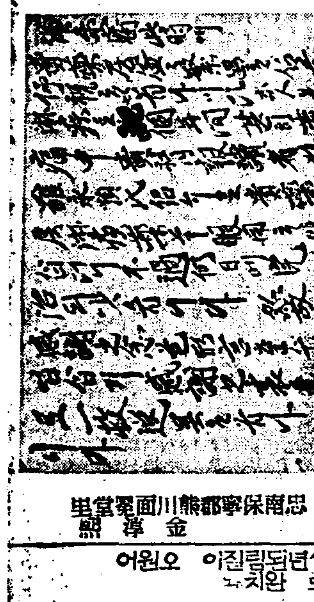
黃海道甕津郡北面花山中里 崔鶴壽

수백종약으로 안낫던 완고한림질이 운권청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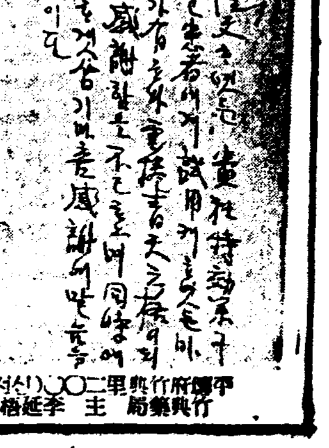
群山府榮町一一八 鐵力店 金泰洙

귀사 월보독자소개로 칠개년된림질이 봄눈가리업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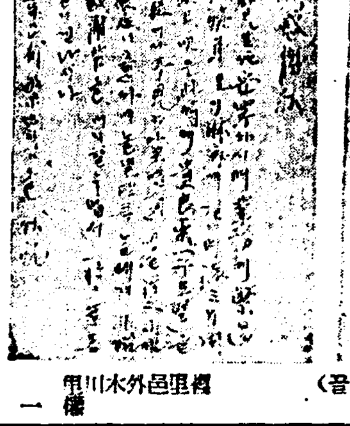
忠南保寧郡熊川面墨堂里 金淳熙

환자에게 서시용하야모다나어 서감사하게선전하는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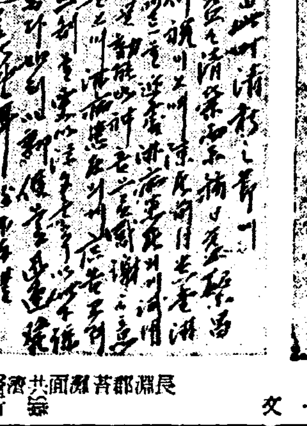
平壤府竹典里二〇〇(신정끝) 竹典藥局 主 李延梧

귀당월보에서 보고 약을주문하여삼년된림질을근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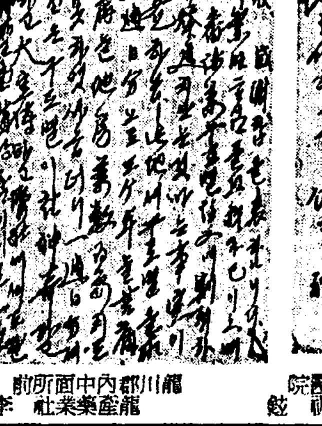
權里邑外水川里 權一文

림진환자에게 시용한바 효능여신으로 다시세제를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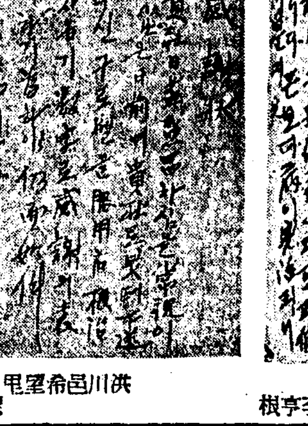
長淵郡青瀛面共濟醫院 徐祈鉉

수백원업생 삼년된림질을 일주분으로곳치고 귀사특약점이될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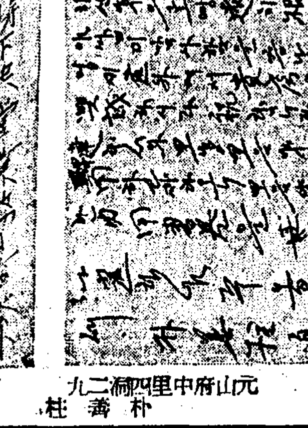
龍川郡內中面所前 龍産藥業社 李亨根

림질을 고치고 귀사의번영을늘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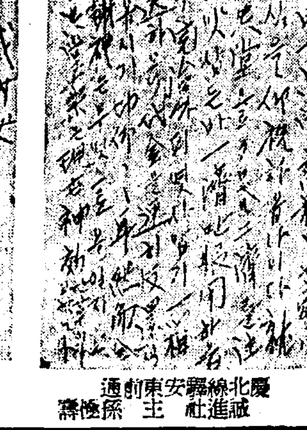
洪川邑希望里 崔泰一

림질을 근치하고 보약에대한설명서를 도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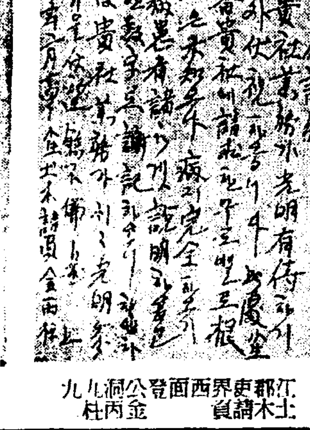
元山府中里四洞二九 朴壽杜

두제중 한제로 림질이나어 안제는반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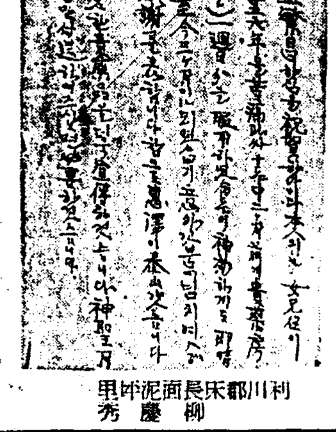
慶北線安東驛前通 誠進社 主 孫極壽

자기나흔 효험으로 림질환자마다 권해



江界郡吏西面公登洞九九 土木請負 金丙杜

오륙년된대하증이 일주일분에낫고 임신삼개월



利川郡麻長面泥坪里 柳慶秀

십삼년된림질이 오원어치로 완치나

慶北安東郡玄鳳面池洞 金錫永方 李源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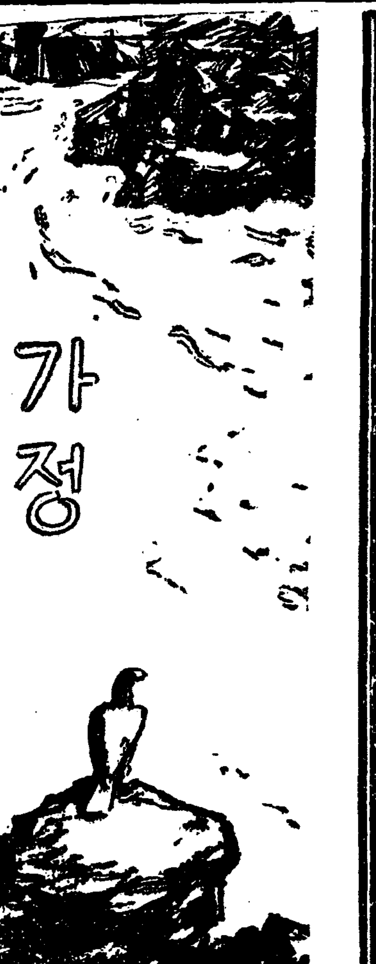
우리의차지

우리집안

아버지는 해종일 들에서 지나신다。가을에 곡식을 거두기위해서。

어머니는 집안일을 마려 보신다。살림을 마려 보시느라고。내할일은 공부하는것이다。조흔 사람되기위해서。

(공주사립 조동)



가정

탈모주의에서 체격"일사병" 자외선도도가지나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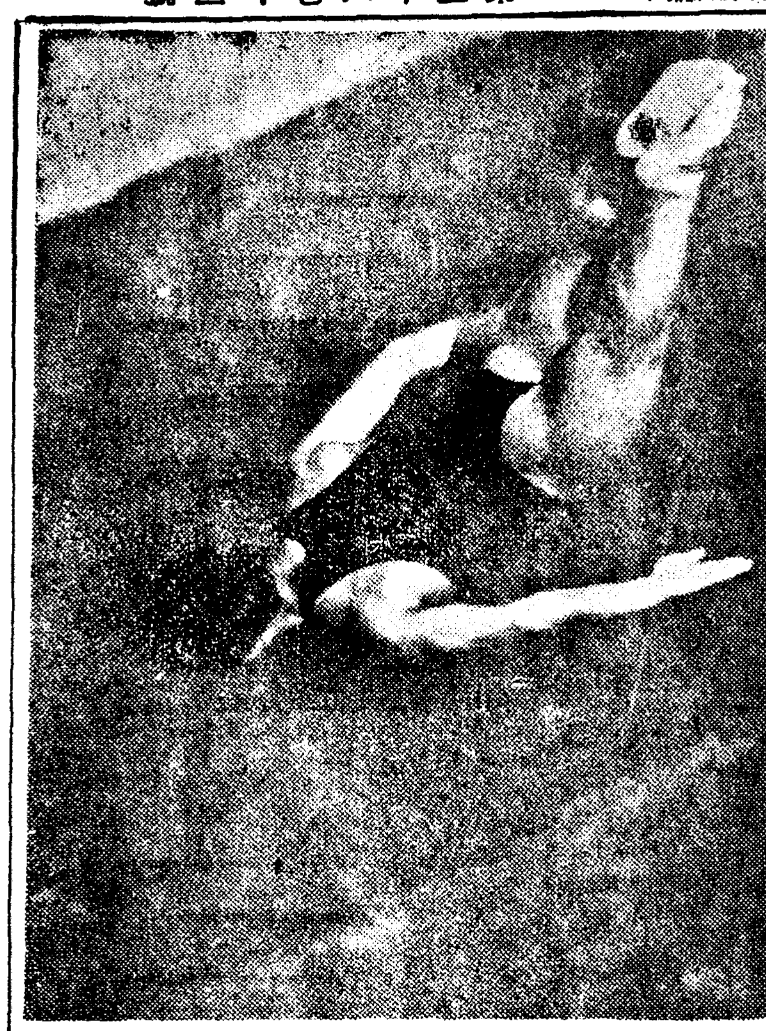
일광으로부터 밧는 자외선(紫外線)이 우리 인류생활(人類生活)에 잇서서 여간 중요한것이 아니라는것은 이미 일반의 상식으로 되야 누구나 다잘아는 사실일것입니다。그 이익되는점의 대개만 든대도 첫재 혈액의 순환(循環)을 조케하고 둘째 식욕을 조장(助長)하고 셋재 비타민 띠를 맨들어 내고 넷재 신진대사(新陳代謝)를 빠르게 하고 다섯재 곱사병을 막는등시 뼈와이의 발육을돕는효능입니다。그런데 어러한 자외선도 수증기나몬지에 잘빽러 들어 가기때문으로 도회지에서는 좋치럼 쏘이기가 어려운 데다가 커다란 건물ㅅ속에서 종일해를 보내는 월급쟁이들은 더한층 어렵습니다。그래서 『일광욕』『일광욕』하고일광에 쏘이기를 장려하고선전하는 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일광도 반듯이 조혼점만잇는것이 아니요 해로운점도 잇스니 즉 피부를 자극해서 염스증(炎症)을생기게하고 또 열선(熱線)의 작용으로 일사병(日射病)을 어르키는 것입니다。그러니까 일광욕도 함부로 해서는 안됩니다。그러케 하다가는 이롭기전 해를먼첨 밧기가 쉽습니다。

열광욕을 할때 몸은 발가벗더라도 머리에만은 무엇을써야 합니다。여름에는 탈모주의자(脫帽主義者)들이 만히 돌아다니는 모양이나 그것은 찬성치못할 일입니다。

물론 나무그늘이 진곳이나 산기슭가튼데서는 모자를벗고 다녀도 가뿐도하고 시원도 하지오만은 폭양이 나려쪼이는데서는 일사병에 걸리기만 십상팔구입니다。만일 일광의 은혜를입기위해서 모자를벗고다니는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를 알고 둘을모르는 수작이올시다。

흔히 도회지의 월급쟁이들은 일광을 쏘인다고 점심시간가튼때 모자업시 옥상(屋上)에 올라 와서 폭양아래 거닐고 잇습니다。옷을 반쯤 벗는것은 조호나 탈모는 도리어 해로옵니다。또 하이킹이나 피닉을 나가는데도간혹 모자를안쓰고 나서시는 분이 업지안습니다。그여시 짧은 바지를 입어서 다리를 내논다든지 소매짧은 옷을 입어 팔을 내놋는것은 몰라도 모자만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조선서는 양장하는 안악네도 모자만은쓰지안는 수가잇는데 모자는 양장의 일부분이라는것을 이저서는 결코 안됩니다。그러고 여름로양에 어디를 나 돌아다니게될때는 조선옷에라도 모자를쓰는것이위생적입니다



사진=록지의비어

무역풍

수는여자가타고나

보통으로 안악네가 남자보담 수를 한다는것은 상식으로거의 다 아는 바지만은 최근 미국의 메 트론폴리탄 생명보험회사에서 발표한 수ㅅ자로서 아주 그러하는 것이정확하게 들어 낫습니다。열다섯살 먹은 사람으로서 예순다섯까지 살 가능성이 잇다고 보이는이는 여자는 천명중 유백쉬흔아홉이요 남자는 오백여든아홉이며 스물다섯살먹은 사람으로서 예순다섯까지살 가능성이 잇다고 보이는 이는 여자는 천명에 유백일곱이며 설흔다섯살먹은 사람으로서는그쯤 살수 잇서 보이는이가 여자는 천명에 칠백하나요 남자는 유백설흔둘이며 마흔다섯살 먹은 사람으로서 그쯤살수 엇서 보이는이는 여자는 천명에 칠백설흔다섯이요 남자는 유백일흔여섯이라합니다。왜하필 예순다섯살을표준하는고하니 그 나이가 바로 연금(年金)이나 부조료(扶助料)를 밧는 나이인까닭입니다

복주머니

일년감의순으로 변소소독이돼

여름에는 어느 대에서나 변소때문에 걱정인데 되도록 푸른 풀이나 나무입사를 따더호면 버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안 납니다。그중에도 일년감의새순이라든지 솔입사귀라든지가 조코 또 제충국이엇스면 그건 더 조습니다。짜다 담배꽁초를 내던지지 말고 모아서 그걸 너허도 무방합니다。약으로는 석유유제(石油乳劑)를 멧칠에 한번식 뿌리거나 파리잡는가루약을 멧칠에 한번씩 뿌려 두는것도 괜찬습니다。

가정의학

선천적으로약한몸

문 소생은 이십삼세의청년이온데 선천적으로 튼튼한체질은 타고나지못하엿사오나 아직까지 별로히 병을모르고 반생을지내왓습니다 그러든것이 수년전부터는 얼굴이창백하여지오며 몸이점점약하여집니다 참으로 비관이올시다 어떠케하면 튼튼한 몸을 만들수가잇을가요 소변은 누른빗입니다 어렷슬때에 소변을참은일이 만습니다 (永登浦도원生)

답 선천적으로 약한몸이라도 후천적으로 건강하게생활할수잇습니다 적당한운동을하시고 자양분잇는음식물을 만히자시고규측적으로 기거를 하여보십시요 얼굴빗치 창백하다하오니 대변을검사하여 기생충을치료하여보십시요 버러지가잇슬때에는 그것만치료하더라도 당신중세로보면나흘것입니다。어렷슬때 소변을참은일이잇다고하나 특별한편계는 업슬것입니다 (梨花病院 [illegible])

보기조코·맛조코·시원한 서양식과일화채

여름에는 시원한 것이 조타고 하지만은 늘 마시는 그것은 또 좀 싫기우니까 가끔가끔 갈아서 이런것도 내노코 저런것도 내놔야하지 안습니까

페퍼민트수

페퍼민트라고 했다고 박하를 쓰는 것은 아니요 가짜입니다。좀 생생한 오이를 강판에 갈아서 헌겁으로짜서 즙(汁)을내면 고운빗갈이 마치 박하와갓습니다。그것을 반컵만 따른뒤 그나머지 반은 물로 채우고 알마치 사탕을탑니다。오이ㅅ맛이 신통치 안흘것가테도 심상 해롭지안습니다。

서과수

수박속을 생사헌겁가튼것으로짜서 거기다가 물을조금탑니다。그리고 사탕을넛습니다。

아부리코트에드

잘익은 살구를 허로리어서 조그만 질그릇에 넣습니다 마른 살구면 물에 너허 불리거나 쪄서 속이 연하도록 데쳐야 합니다。그래서는 은사시로 두사시쯤씩 그 것과 사탕을 너코 물을 부어 탑니다。

그레이푸에도

포도를 한알씩 따서 잘씻은 뒤 생사헌겁에 싸서 즙을 냅니다。그래서 물을 빨둥 하고 사탕을 너허달게 합니다。

이외 복사、나쓰미깡、일년감 어떤 것이든지 잘 생각해서 그러케 맨들면서 고 손쉽고 맛잇게 안될것이 업습니다。

長篇小說

찔레꼿 【83】

金末峰作 金熊超畵

사랑의천도 (四)

분명코 경애가 무슨말을하엿고 그리고 면수가 마주 무엇인지 말을할려다가 자기가오는것을보자 흠칫 입을다무러버리는것을보는정순은 눈아피 아찔하엿것다。

『제가 오지안헛더라면 좀더 자유롭게 얘기들을하실텐데……』

질투란 감정의홍수가 스물두해동안이나 싸하온 자기자신의교양(敎養)의방축을 여지업시 무러트렷다는것을느낄때 정순은 무엇으로 형용할수업는 괴로움과 초조함을느끼면서 빈자리로가서 안젓스나 어상스럽게도 좌석의기분은 어색스럽고 어울리지못하는것을 어찌할수업섯다。뻐이가와서 저녁준비가 다되엿다는것을 알리워주고 그리고 네사람은 식당으로 드러갓다。

『나를보자 입을다무러 버렷다 면수씨가……』

어런생각을 하면서 나푸킨을 무릎우에 올려놋는 정순의손가락은 레ー블아래서 절서어시떨리고

경구가 우스면서 무어라고자거를보고 말을하여건만 물론알아듯지못한채 의지로 우서보이는 정순의얼굴에는 가느다란 경련이지나갓다。

민수는 팡을뚝떼여 빠다를발르면서 속으로 고개를끄덕엿다

『저두사람을 경구와정순을 결혼을시킨다? 정순이가 경구에게로갈까? 갈까?……아ー니 아ー니』

이러케 맘속으로 부르지즈면서도 민수는 입에쪼여너흔 팡조각이 말른가죽처럼 뻑뻑이 혀바닥에서만 굴으고잇는 자신이 약간 쓸쓸하여젓다。그러나 경애만은 노래하는 카나리아처럼 명랑하다。웃고 이야기하고、그들의식사가 절반이나 진행되엿슬때 뻐이의안내로 새로드러온 손님은 동편창아래레ー블로 자리를잡고 방금뻐이가 밀어넷는 교의위로 걸처안는 그신사를무심코 바라보는 경구는 거의반사적으로 얼굴을돌려버렷다

『다른데로 정할걸』

하고 그는 여기가 아버지의곳장 잘단이시는곳이라는것을 새삼스레생각을하고속으로혀를찻다

조만호씨는 가치드러온 여자손님과는 아무말도업시 두사람은 잠자코 뻐이가갓다놋는 음식만점잔케 먹고잇는것은 위선 경구의맘에 고마웟스나 좌우간 그화실히 경애보다 젊어보이는 조선옷을입은여자……물론 몰애락 백헌기생을데리고 이런곳에와서 점잔스럽게 식사를하고안젓는 아버지의모양이 그의아들인 경구외맘에 어떠케 창피할수가잇슬까。

경구는 행여나 면수가 자기아버지를 도라보지나안흘가하고 가슴이 조마조마하여지는것이다。

『어뽀ー이!』

하는 아버지의 콧다랑목소리가 들려오자 경구는 고개를 푹숙여버렷다。

『어ー그럼 무엇시킬까 정식은 죄다 입에맛지안는다니……』

아버지는 마주안즌 기생의 대답을기다리는모양이다。

『스시? 그럼스시……』

하고 조만호씨는 뻐이를향하여

『스시를 가저오게해주용 여기업스면 화월(花月)에 전화를해서라도』

여기까지듯는 경구의머리는 좀더 숙으려젓다。

조만호씨와 마주안즌여인은 물론 옥란이엿다 그는 드러올때부터 자기와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정순의얼굴을 흥미잇게바라보고 잇는것이다。

『과연어여쁘다 제일로 저이마와 코 그리고 입모습 아니 눈 그보다 려이떠조와 목덜미 어께……』

속으로 부르짓는 그는 자기보다 화실히 잘생긴여자를 발견할때마다 느끼는 그러한불래가 지금도 가슴한복판을 연기가리떠겁게기여가고잇는것을 어찌할수업섯다。

옥란은 비록거리가 떠러저잇긴하지만 한사람만을 너무자세히 간마이하여저서 되도록 보지안흐려하면서도 그는 또다시 정순의 아름다운얼굴을 훔쳐보는 자신이 떠하기도하엿다。

주문하여논스시가오고 옥란은 스시를 집으면서도 그의 눈은 도독고양이처럼 정순을 적히고 잇다。

『무얼 그러케 정신업시 보고 안젓서』

하고 옥란의눈이 가는곳으로고개를 도리키든 조만호씨는

『아 정순이가왓군 이바라 경애까지…아니 경구…그런데저사람은 어민수……』

조만호씨는 싱글벙글 우스며

『우리집 아이들이야』

하고 자랑스러웁게 옥란을 바라보앗다。

『따님이시야요?』

하고 바로 어쪽으로 환이 얼굴을 보이고잇는 정순을 턱으로 가르첫다。

『재말야? 아ー니 우리집 가정교사야……우리딸은 도라안저잇는……양복입은색시야하하 그리고 그여때안진것이 우리 아들이구』

옥란은 가정교사란말을듯자 그의 어여쁜눈섭이 살작 흐려지는것을 조두취는 알지못하엿다

『영감!』

하고 스시를 겨우두개채집은 옥란은 고개를갸웃이하고 조만호씨에게 살작 윙크를하고는

『우리 다른데로 가요네?』

조두취는 엽서 옥란의 말쯧을짐작하면서도

『건웨 밥을먹다말고……。』

하고 짐짓딴청을댓다。

『그래도 난실혀요 댁자제분이나 따님이 날보면 어떠케해요가요네?』

말을마치자말자 옥란은 자리에서 바시시이러낫다。조두취는 입에들어잇는 소고기를 절근절근 씹으면서 뻐이를 불러 계산을치르고 곳현관으로 나왓다

『그러치안허요?영감!』

하고 옥란은 호텔정문 가까이나올때 조두취를 처다보고소군거렷다。

『무엇이?』

요ー지로 어룰 쑤시든두취는 옥란의 말을 못아라들엇다。

『우리가말야요 정식으로 혼인하기까지 난영감댁가족들과는 만나지안는것이 낫지안켓서요?』

『글세? 그럴것도업지』

한산어 나갓서어다 모양으로힘업시 대답하는 두취의 눈에는 정순의 하ー얀목덜미가 지나갓다。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八月號

女性 發賣中

夏特輯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振替京城 五八七八番

絕版되기前에 速히注文하시오

京城各女學校女先生評判記 梨花 培花 3

國際舞台에빗난 李貞愛氏를찻어 ―記者

내가女醫가되기까지……金東淑

畫報 ▲八月의水神 · 淸涼의誘惑 · 모던 漁婦 · 山으로 金剛 · 江으로 大同 · 森林各優納涼포즈

京城各女子專門學生夏休플랜 ▲梨花女專生 ▲中央保育生 ▲梨花保育生 ▲京城保育

北平에서본中國女學生 洪鍾仁

主婦日記 崔以權

家庭讀本 改良型內衣製法……任貞爀 海水浴場의化粧法……吳淑根 夏節의兒童衛生……張文卿

詩 마음의湖水 [illegible]

納涼四題 午睡……畫 金奎澤 文 洪鍾仁 西湖津……畫 洪祐伯 文 李源朝 漁村……畫 崔根培 文 盧泉鳴 庭園……畫 鄭玄雄 文 咸大勳

新戀愛論 金基錫

銷夏小說特輯 유모어小說 毛皮濟 朴慶浩 短篇小說 雲霧 鄭飛石 短篇小說 果實 趙豊衍 中篇小說 停車場近處 蔡萬植

納涼隨筆 感情白紙……金晉燮 珠簾……張德祚 太極扇……李源朝

記憶에남은夢金浦(旅行印象記) 姜敬愛 갈받과 선게나리(鄉土寫情記) 盧天命 늙은귀신火葬(그夫人一生) 申鼎言

沙場의悲話 ＊바닷가의노래……朴泰遠 ＊幻想……毛允淑 ＊競泳과順伊……安懷南

女流諸氏의銷夏法公開 金活蘭·尹聖相·車士百 徐恩淑·宋今璇·高鳳京 朴奉愛·張文卿·外諸氏

世界女性들의新生活 春城

◎世界女性展望 ◎웃지맙시다 ◎內外珍聞

彫刻家 金復鎭氏家庭訪問……R記者

金剛八潭과羽衣八仙女(朝鮮名湯傳說) 車相瓚

無鼻夫婦說(女性讀本) 李殷相

聖女헬렌·켈러女史의意志(내가나를살리자) 徐恩淑

■詩扉……노천명 ■表紙·插畫……鄭玄雄 ■扉畫·插畫……崔根培

學藝

畫壇雙曲線 (中)

朝鮮의風景과獨特한色彩

高義東
具本雄

具 東洋畵와 西洋畵는 무엇이 다릅니까?

高 그게야 만흘테지 그러나簡單하게 말하면 西洋畵라는것은 實際的으로바든 무슨 늣김을 그대로 그리지마는 東洋畵는 그러한 實際的인늣김을 바덧다고하더래도 그것을 그대로 그리지안코 一種의詩的情趣라고할까 또는 理想이라고할까 그런것을 그리는것이지.

具 그러나 西洋畵도 近代에와서는 그러한傾向이 보히지안습니까?

高 글세 요새는 西洋畵도보니까 사람어 풀을 날이다니는것도 그리기도 하는데 그것은 무슨 理想인지 모르겟스나 그런것은 아직도 그저幾個人의 試驗이나 作亂程度가 아닐까요 어디 西洋畵의 全體的으로서야 그런傾向이…

具 그러나 近者에와서는 그런傾向이 점점 强해지는것가튼데요.

高 그러두군요 그러니까 西洋畵는 정말寫生이아니지요 가령 여름철의 더운때에 어떠한 景物을 그린다면 다만그 『感じ』만잇지 어디 實體와는 全然 다른단말이야 그러나우리 學校에 다닐때만해도 어디그렛나요?

具 그때는 實體와 꼭가티 그렷나요?

高 꼭가티는 안그렷서도 어느程度까지 物體의 說明이 必要햇지요 가령 樹木을 그린다면 條色을 써야한다고…。

具 지금은 그와 反對가 안입니까?

高 그러치요 그러나 우리가 배울때는 심지어 어떠빗갈은못쓴다기까지 햇습니다。그때는 고흔비츨 만히 썻스니까 가려울때가튼것은 못쓰게햇습니다 쓰면 先生이 지워버리고 다른 여러빗갈을 混用해서거문『感じ』만 나도록하라고햇습니다。그것은 그럴밧게 다니까 거기에 빨랙을 써서야 調和가되겟습니까?그러나요새는 모두 고흔비츨 쓰지안코는 取扱하는비치 모두『늘고(濁い)』한것을 쓰니까 빨랙을 써도 無妨하지。그러나 이러한 傾向은 大戰以後에 갑자기 변한것입니다。

具 朝鮮서는 그러한 變하것을 배우는것이 조흘까요?

高 그런데 西洋서는 그러한古典式으로 오래동안 그려오다가 그것이 막다른골목에 이르니까 이래그려보아도 새로운것이업고 저래보아도 새로운것이업서서 허는수업시 엽길을 돌어본다고한것이 그러케 변한것이지마는 우리야어디막다른 골목에 가보기나햇나요 가보지도못하고 남이 이리가면 어리로 따라가고 저리로가면 저리로 따라가는것은가만히는일이지요 나는 그저 끌그러케생각합니다。제것이 업시 남의 발자욱만 따라다니는것은 아무所用이업다고 생각합니다

具 원래 色彩에對한 美的鑑賞이 저사람들과 우리는 다르지안습니까?

高 다르지요。

具 요새는 그런것을 無視하는것갓드군요。

高 無視할뿐아니라 요새 西洋畵家는 朝鮮獨特한 色彩에對해서 너무 無關心한것갓습디다。가령 風景으로 말하드래도 朝鮮은 비오는날以外에는 언제나 天氣가淸明하고 空氣가乾燥한데 어디 누구의 그림에선들 그러한것이 보입니까 모두 비치 늙고 그저…

具 배우기를 본래 空氣가 濁하고 濕한데ㅅ것을 배웟스니까。

高 『가브레루』해서 그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精神업시 배우기만하니까 그러치마는 장차 아프로는 그것만은 整理되겟입니다。

具 繪畵의 思想性은 어떠할까요?

高 思想性이라니요?

具 가령 風景畵를 그린다고하더래도 作者가 그內容으로 무엇을 가지고잇슬게아닙니까?

高 그야 잇슬테지。

具 그것을 가저야하나요?

高 그림이 산그림이되자면 勿論 그런것이 잇서야하지마는 그림이되기전에 그런것은 必要치안켓지요 가령 詩로말하드래도 그것이 말도나 또는 文字로 먼저詩가되뒤에 그러한 思想이 必要치안흘요?그러니까 그림도 역시 먼저그림이되어야하지요。

讀書子에게福音 「마이크로필름」의出現

記錄、文書、書籍等을 映寫하는새로운方法이 最近米國에서流行하게되엿다 勿論一一이寫字하는것가튼 非科學的인것이아니고 小型의寫眞을 撮影해서 半透明의「스크린」에다가 擴大映寫해서 이것을읽게한다고한다

이小型寫眞을「마이크로필름」이라고 普通活動寫眞필름을使用하는데「마이크로필름」百呎은「조기」의「포켓」에 너흘수잇는것이라고하는데 이것을普通冊으로치면 千六百頁이나되니 相當히두터운正冊의 大冊分가량은 收錄될수잇다 이새로운「데크니크」를『마이크로포-토그라피』라고한다 但「포-토그라피」와 混同해서는 못쓰며 後者는擴大鏡에 依해서 微細한物體의큰寫眞을 撮影하는것이다 「마이크로필름」을읽는 擴大映寫機는 책상우에세여라도 設置해서 簡單하게 볼수잇는것이다 「마이크로필름」을 몇권이던지 만들수잇는것이다 完成되엿다「마이크로필름」은 라지안는 「필름」을 말하자면 安全「필름」을 目的으로만든데문에 保全의 目的에도 適應한다 「마이크로필름」의耐久力은 良質의「랏그페-퍼-」(襤褸를原料로해서 만든조이)와同樣이라고하니 百年乃至二百年은 保存된다고한다。

米國圖書館에서는 約三年前부터 「마이크로필름」을 利用해서 研究用及 實際上의利用에 쓰고 잇서數千頁의 여러가지 資料가「마이크로필름」에 收錄되여 研究家의利便에 供給되고 잇다 이經費는實로 一頁一仙밧게 안된다고한다 寫眞版、參照寫眞、圖表、又는 非常히 大部의書籍等의出版에 不適當한 記錄도「마이크로필름」에依해서 容易하게再製頒布가된다。

「마이크로필름」의 實際的 用途의 하나는 新聞紙、書類、其他資料를 收錄保存하는것이다。어느米國의 新聞紙가 完全한 日新聞을 圖書用으로서「마이크로필름」에 收錄하고잇다 이것은 普通新聞紙이면 二十年만가면 조이가 損傷되어읽을수업시되는때문이다。「마이크로필름」에 新聞紙、書籍、書類의가든 大量出版物代用되리라고는 勿論생각할수 업다。「마이크로필름」의 本領은 少數의 要求에 對해서 少數의「코피-」를 提供하는 데잇다。

現在의「마이크로필름」은 縱十一吋、橫八吋의 原本을 縱一吋、橫四分의三吋의 「필름」에收錄함으로 面積으로말하면 原本의 百二十五分의 一로된다-그러나 寫眞技術의 發達에依해서 「마이크로필름」은 훨신小型으로 할수도잇다。萬若現在의 縱一吋을四分의一吋에까지 縮少시킬수 잇다고하면 米國의 圖書館에서「카드」를 用으로 쓰고 잇는 「카-드」一枚에 普通책의 二百四十頁分의 寫眞이 撮影된다「마이크로필름」의 利用이 發展까지가면 圖書館의 膨大한 册架는「카라로그·카-드」의 설합에縮少할수가잇다。

隨筆二 螢火

朴英熙

여름날 저녁은 무더우면서도 또한 시원하다。태울드시 나리쪼이든 해가 업서진것만 하더라도 저윽이 마응속으로서늘한데 수풀속 얼크러진새 새들틈을 요리조리 溪流처럼 갈피를 차저 부러오는 微風의 淸香이、땀난 내뺨을 씻치고 지내갈때는 참으로 시원하고 淸新하다。나는 저녁을 먹으면 으례히 이淸風을차저 西虎亭 밟아레 욱어진 숩속을더듬고 올라가서 千金을 주고도 바꿀수업는이 淸風을 풍족에 안는것이 나의저녁 課程이다。요사이는明月까지 잇서서 맘그대로 淸風明月을 즐길수 잇스니 이얼마나 爽快한 일이랴!엣사람은 말하매 갑업는 淸風이오 임자업는 明月이라 하엿스니 내가 淸風과 明月을 즐기는 樂이 잇서슴을 또한 자랑하고싶다。

처어다보면 [illegible] 스나 月明星稀란 오른말인지 달이 밝을수록 별이적어보인다。터위에 醉하엿슴인지 별들어 너무만하서 웅기종기부터 엇는것도 답답한듯하다。片舟도 업는 滄海를 바라보는것처럼 廣漠한 平原을 내다보는것처럼 푸른하늘이 그냥 펼처 잇섯스면 하엿다。

나려다보면 萬戶長安의 불은 電燈불이 몸시도 더워보인다。저속에서 복작거리는사람들의 더위를 생각하면 모처럼 어든淸風도 無色하여진다。

그러나 여름밤은 시원할수록 잠이 솔솔 흘러나온다。당연히 아름다운 생각이 흘러나오겟만 하루종일 더위와차와서 疲勞하엿슴인지 졸리기만하다。한篇의 短詩가 엇지도 안흐나 그보다도 꿈과가티 달디단 잠이 고치실흘리듯이 솔솔흘런다 淸風은 나와 자장가인듯싶다。

김고긴 여름해의 餘光이아주 西便하늘에 사라지고 어둠 친친한 수풀속에 웅긍기픈 웅덩이까로 푸른불이 어리저리로 날러 얼크러 진다。螢火! 그것은 반디불어다。한마리가 날으고 또날으고 또더러날때에 셋파런불의 餘光은 五色 얼크러진 렌쯔과 도갓다。켜젓다가는 꺼저고꺼젓다가는 또 켜진다。어찌보면 그푸른불비치 紅顏美女의碧眼과 가티 부드럽고도 可憐해 보인다。그러나 또 어찌보면毒蛇의 妖眼과가티 내마음을 찌르고드려오는 무엇을 께닷게된다。

이곳은 古廢이 만흔곳이라 嘆은 幽靈이 아닌가 疑心하고 내眼머른 보니 이도한 白骨이 파무친든 웅덩어이엿슴으로 얼마간 恐怖에몸을 若干 떨엇다。

아니다!아니다!어 무는 鬼화이며 妖怪어라!나는 어는때나 가장 아름다운것을 블 때에는 아주 正反對의 奇怪한 幻想에 사로 잡히는때가만타。어것도 무슨 病인가보다。여름밤의 반디불은 수풀속에 감초인 별이다。웅덩어속에 감초인 水精의 사랑의 비치다。睡蓮의 가슴속에 감초인 사랑의 結晶인지도 알수업다。

이 무슨버레기에 몸의 光明을가지고 다니는고—。어무슨버레기에 情熱에 제몸을 태우는고—。일직螢火는 寒士들의 燈燭을 대신하엿거니와 오늘 어밤에 저반디불은 졸고잇든내마음에 간얄핀詩想을 불러 이르켜여 그螢火의 神秘를 풀고저생각에거피 빠지게하엿다。

별들이 地上에 나려와서 놀리다니면 그러케 푸른비츨반작어면서 나르겟지하다가 나수스로 내空想에웃섯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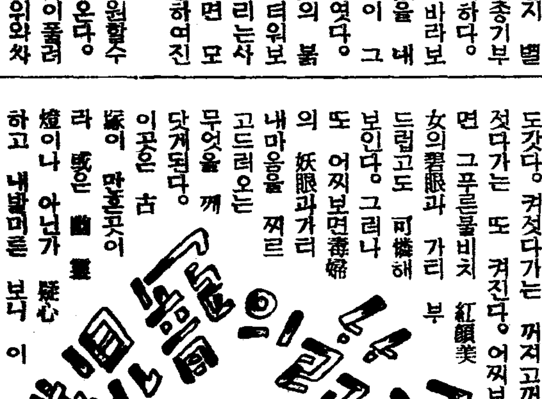
별어간 아이들 한패가 제저귀면서 올라오드니 『반디불! 저기저기 반디불!』

『잡자!잡자!』『그래 그래!』하고 아이들은 어리저리로 허터저서 수풀속에드러가 이리저리 날리다니는 반디불을잡기시작하엿다。어떤애는 반디불을 발로 밟어버리기도하엿다。어떤애는 한옹큼을 잡어서 손속에서 푸른비츨 반짝거린다。어리해서 나의 周圍는 喧噪로 찻고 나의 머리속은 아주 허트러젓다。

『애 너희들 그것잡어다 뭐하니?』

아이들은 들은척 만척하고 잡어가지고들 나려간다。얼마동안 반디불은 하나도 업서 내 周圍는 컴컴하엿다。

그러나 얼마스뒤에 은 또나와다。나는 아이들이 또 올까봐서 겁어낫다。그리고 아무리 微物이라도 웰체 光明을 항부로 벙치는고?그리다져 다시생각하기를 또한 光明을 어찌 감초일수가 엇스랴?情熱을 어찌숨길수가 엇스랴!하고 내스스로 反問하엿다。(끗)



鍊金術 女流評論家

柏木兒

우리文壇에서도 女流文壇이라는한部落이 생기기는 언제부터인지 자세히 알수업스나 언제는 詩人과 作家 그리고 中間文의 筆者들까지친다면 相當한 수효를헤아릴수가 잇다。

그러나 外國의女流文壇을 보면 겨기에는반드시文學잔르에 따라서 다各各 專門으로하는사람이잇서서 作家도잇고 詩人도잇고 評論家도잇고한데 우리의 女流文壇에는 아직도 한사람의 評論家가 出現하지아니한것은 좀 이상하지안타고할수업다。

가령 一般으로 文壇이라고하는 圈內에서 보드래도 評論의 水準이 創作의水準보담 낫(低)다고하는것이 通說인모양이니 이러한現象을 女流文壇이란 限定된 局面에서 類推해본다면 多少의 짐작가는 點도업지안흐나 그것만으로는 어現象을 充分히 說明한것이라고 볼수업다。

그러면 女流라는 生理的特質이 評論과는 갓가울수업는것일까? 이것은 가령 그러라고하드래도 問題를 이러한 方面으로 이끄러나가는것은 가장俗說에 빠지거쉬운것이다。그럼으로 여기에서는 女流文壇에 評論家가업다는 奇現象을 그저한개의奇現象으로서 보는것이 切當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것은 보는사람의 好意는되려니와 그러라고해서 女流文壇의名譽될것은업는것인즉 女流文人들의 한번 反省해볼點이 아닐는지 그야 評論이라는것은 眞叡한 文人의할배가아니라고 아주 처음부터 一笑에 부친다면 모를일이지만。

夏期植物採集에對하야 —그道具와方法에關한略解— ③

李軒求

1、壓搾乾燥方法

採集家한後에는 採取한 植物을 採集箱에서 徐徐히 引出하야 四折한 新聞紙에 펴노코 爲先植物의 形態를 整齊하여야합니다。壓搾後에는 그대로 固定하야버리는고로 꼿이나葉의 位置를 바르게할것은 勿論이요 凋萎한 葉片이 잇스면 그것까지도 展開하야 固定後에도 一見그植物의 形態를 알수잇도록하여야합니다

2、各包紙中間에는 一葉의吸濕紙를 揷入하는것이조호나 特別히 多肉한植物이아니면 揷入치아니하야도 關係업습니다

3、以上과如히 植物을 包藏한包紙가 三四十個되야 適當한高에達하거든 前述한壓搾器에너허서 壓搾하든지 或은 松板을대고 무거운돌로 눌러서 空氣가 잘流通하는場所에 두어야합니다

4、最初一兩日間은 每日數回式 乾燥한新聞紙로 置換하야 漸次乾燥시킨後 植物의屈曲한葉片이 부러질程度가되면 壓搾乾燥를 中止하야도 關係업습니다

5、百合이나 仙人掌이나 多肉한果實은 裂開하야 內部의肉質을 除去한後 壓搾하는것이 便利합니다

整理法

以上과如히하야 壓搾乾燥가完全히된 植物標本은 長久히保存하기爲하야 白色堅靱한 厚紙에裝置하는것이 普通인데 어와가튼裝置에쓰는厚紙를 臺紙라고합니다 그裝置하는方法은 爲先 植物을 臺紙適當한位置에 노흔後 細切한 白紙片에『아라비아고무풀』을발러서 植物이 移動치아니하도록 臺紙一端(大槪는右下部)에貼付하는대 名義에는 學名、地方名、産地、採集年月日、採集者氏名等을 記入하는것이 常例이지만은 正確한名稱은 普通사람으로서 檢索할수업는것이 만흠으로 專門家에 問議하야 錯誤가업도록 注意하여야합니다

海藻類採集整理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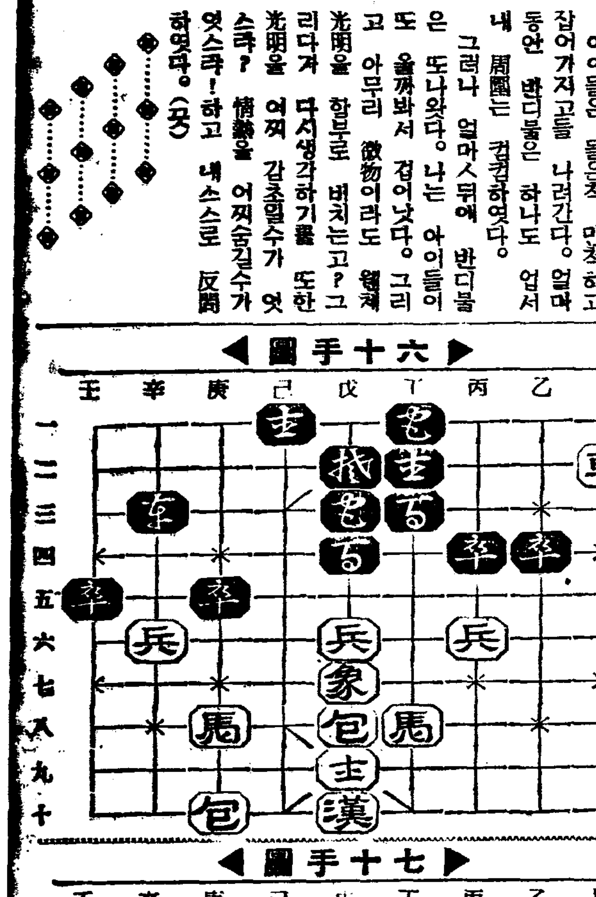
海邊에 居住하는이나 또는海水浴에간 機會를 利用하야 海藻類의 標本을 製作하는 人士에게 參考가될가하야 그分法을 簡單히 說明하려합니다。

그方法은 普通植物의境遇와 大體는同一하지마는 若干相異한것은 採取한海藻를 自己處所에가지고온後 洗手대야나 其外水筒에물을담고 海藻를 물속에서適當한長度으로切斷한後 臺紙를水中에집어너허서 臺紙로海藻를건지는同時에 水中에 그形態나位置를整齊하고 水外에引出하면서 若干傾斜가되도록 기우려서 水分을除去한後 그標本海藻上部에 晒木棉(오리몽)으로덥고 包紙로 싼後 普通植物과가티 壓搾하면 그만입니다 元來水分이만흔關係로 最初數日間은 每日二三回式 包紙를置換하고 그後는 每日一回式置換하야 充分히乾燥된後晒木棉만을 떼면 海藻類는 大槪粘着力이强하야 臺紙에密着되고、晒木棉만容易히 剝離할수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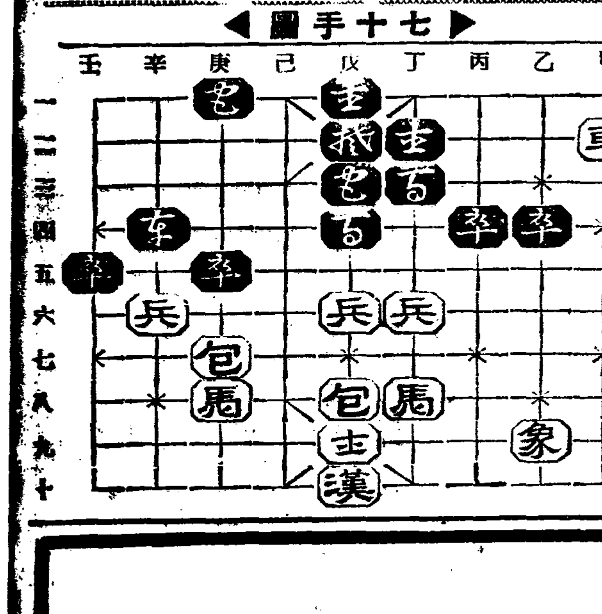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七)

漢 李在鳳 楚先手 許鏞

◀第十六手圖▶



◀第十七手圖▶



丁二[illegible]—庚一 庚七包—庚四
庚七包—庚七 丁四[illegible]—丙四
丙四[illegible]—丁四 戊七象—乙九
丙六兵—丁六 辛三[illegible]—辛四
己二[illegible]—戊一 庚四包—庚七

學問과生活 —哲學의濫用觀念에抗하야— ⑤

金午星

生活이 要求하는 自然은 그것을 征服하며 人間的條件에依하야 變化시키며 거기에 創造를 加하기위한 生活素材로서인 것이다。人間生活의 最初의 形態는 人間과 自然과의 決鬪다 그것은 自然이 우리의 生活地盤이며 生活素材가 되는點에서 만 아니고 自然이 때로는 暴威를 가지고 人間의 生存을逼迫하는까닭이다。어려하야 自然을 人間의 自己네 條件에 依하야 變化시키는대서 人間의生活史는 形成된것이다。哲學은이러한 人間 實存의 表現이 아니면 안될것이다。生活이 自然을 征服키위하야는 때로는 自然에 順應하여야하는것과 가티 哲學은 現實의 理解를 必要로한다。그러나 그것은 現實을享受하기 爲해서가 아니고 現實을 變化시키며 現實을 發展시키며 새로운 現實을 創造키위한 手段으로서만 要求되는것이다 우리들의 實存哲學이 現實에 立脚하면서도 現實을 受動的으로 反映하거나 靜的으로 解釋하고 잇는 온갓 機械論的 現實主義와 絶對的으로 區別되는 點이 여기에 잇는것이다。實證에 잇서 從來의 온갓 哲學體系는 理想主義까지도 內容에잇서는 한개의 卑俗한 現實主義에不過하엿는것이다。發展의 論理로서 辨證法을 大成한 헤-겔도「現實的인것은 理性的이며 理性的인것은 現實的이라」하야 哲學은 불탄뒤의 廢墟를 물으는것과 가티 時代와 情勢이 되는 伺은뒤에 그時代精神의 影像을 從來的으로 敍述하는것이라 하엿다。哲學이 現實의 反映이나 理解에 끈친다면 우리의 實生活은 무엇때문에 哲學을 要求할 것인가?哲學이 單純히 우리의 知識慾을 滿足시키기위해서 存在한다면 그存在의 意義가 너무도 薄弱하다 할것이다。그러나 哲學이 單히 現實의 反映이나 現實의 解釋에 끈치는것은 現實을 正確하게 把握하는 것이 못된다。웨-그러냐하면 現實은 靜的이 아니요 發展的인 것이며 現實은 哲學의 範疇에 들어마슬만치 合理的인것이 못되고 非合理、矛盾의 結晶이기까닭에 現實을問題삼는것은 곳 現實을 變化시키는 行爲가되고 따는까닭이다。여기에서 우리는 온갓現實主義(機械論、觀念論、理想主義等을包含한)가 歷史의 頹廢期에서 묻허져가는 現實을 維持하려는 한개의 이데오로기-的魔術에 不過한것임을 알수잇슬것이다。우리는 歷史의 轉換期에 서잇다。이때의 哲學의 課題는 現實의 擁護에 잇지안코 現實의克服을通하야 現實때문에 파무처진 可能의 世界에 創造하지안흐면안된다。X는 어떤 形而上學的實體가 아니고 現實世界의 內面에서 자라나고잇는 한개의 可能의世界다。잇는世界가 아니고 잇서질世界다。잇서질世界는 價値哲學에서 말하는 일은바 當爲(Sollen)와가튼 主觀的論理的 命令이아니고 現實의 壓力때문에 埋沒되여잇는 그自身 高次的인 現實이다。可能性은 非現實性이아니고 高次的인 現實性을 意味하는것이다。高次的現實은 現實의 克服에서만 到達할 수잇는 未來의 世界인것이다。哲學은 이 X의世界、未來의世界、可能의世界를 探求하며 開拓하며 創造하는것이 今日哲學의 根本使命이다。여기서 哲學은 解釋으로부터 批判에 認識으로부터 創造에의 轉換을 하지안흐면 안되게된것이다。한개의 現實을 克服함으로써 달은한개의 現實을 創造할것이 우리들의 生活態度인 同時에 또한 우리들의 哲學의 根本課題이다。이것은 우리의 主觀의 設定이 아니고 우리의 生活史와 우리의 哲學史의 嚴肅한 命令인것이다。(完)

001176

銀의內服으로써淋疾은속히근치된다

京都帝國大學附屬病院泌尿器科 醫學博士 片山義郎先生實驗推奬
東京市電氣局泌尿器科醫長 醫學博士 橫尾守中先生實驗推奬

京都帝國大學研究所·發明 金屬오루가노조루製法 應用

從來淋疾의治療法에는長久한日數와多額의費用이所用되는것을 例事로생각하엿고 또그것을是認치안호면 안이될狀態에處하엿섯습니다 그러나京都帝國大學教授堀場理學博士와및小田切理學士의協力研究에 依한發明特許「金屬오루가노조루製法」이 完成되어서 이것을應用한結果 斯界에서처음으로超微粒子銀(코로이도)의內服化達成劑로서 新治淋藥「바로-루」의出現을보게된以來 淋疾의治療에對한臨床醫家及患者의認識은놀하게서 治療界永年의宿題이든男女急慢性淋疾의短期療法이 겨우그端緒를엇게되엿습니다

深達殺菌作用

즉「바로-루」는 强烈한殺菌消炎作用을가지고잇는銀과 鎭痛利尿作用을가지고잇는白檀油와의二大治療藥物의 特殊處理에成功하야어든 無味無臭한 服用하기쉬운球劑로서 內服하시면 곳腸壁으로부터血管淋巴管에吸收되어 그循環에依하야、全組織에滲透되고 特有의强大한深部透達作用을發揮식혀서 洗滌 注入 揷入等의外用局所劑로서는 到底히 効果를엇지못할 尿道側管과및深奥의攝護腺 膀胱 副睾丸 腎盂 子宮內膜 卵巢 喇叭管等의各部에到達하야 거기에깃드리고잇는淋菌을全面的으로滅殺식히며 病竈을부시버리고 또炎衝을가라안치며 患部組織을新生케하는 特殊한醫治効果를가지고잇는고로 그治淋轉機는 자못迅速하고도確實한것임니다

服用後의變化

그럼으로「바로-루」를服用後 여러가지의淋疾症狀은 確然히 輕快케되고 그治癒經過도 또한獨特한바가잇습니다 그服用後의現著한變化를들면 다음과갓습니다

▼疼痛이速히減退消失되는것
▼濁하든오즘이淸澄해지는것
▼血尿 膿尿의排出分泌이업서지는것
▼婦人白帶下가減少되는것
▼排尿量어現著하게增加되는것

그리고 連服하셔도 粘膜을刺戟식히지안코 胃腸障害等의副作用을일으킬염려가 조곰도업는것이「바로-루」의一大特徵임니다

製法特許

바로-루

바로-루(銀오루가노조루산라루油)는 京都帝大化學研究所內에잇서서 그特許施設의理化學的操作밋헤서 嚴密製造되엿고 더욱히同大學附屬病院泌尿科밋婦人科를爲始하야 全國著名病醫院에서 臨床的으로使用되어잇스며 그治驗成績이 極히優秀한結果에對하야서는 同大學醫學部皮膚科泌尿科教室醫學博士片山義郎先生이皮膚科紀要第二十二卷第三號에發表하야、어것을醫學會에報告하엿스니 어것으로도 넉々히 本劑가 그얼마나權威와藥効가偉大한治淋藥인가를알수잇습니다 바로-루의連續服用과自制攝生 어것이야말로 淋疾의最短期療法이라고서 여기에推奬하는바임니다

無代進呈

新刊「淋疾과그療法」어라는 四六判 七十餘頁詳細圖解入冊子을 希望하시는분은 新聞名을明記한후 申込하시면 一名一冊에限하야 無代로進呈합니다

全道各地有名藥店에잇습 萬若品切時는直接發賣元에爲替나振替或은代金引換으로注文하서면密送함 先金의時는送料는不要함

藥價 一圓八十錢 三圓五十錢 五圓五十錢 十圓 送料四十五錢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神田區鍛冶町大通(神田驛前) 振替東京三四〇番·代表電話神田二〇〇番 大阪市東區淡路町(大手橋西詰) 振替大阪七九五番·電話北濱三二六九番

男性ホルモン エナルモン

호 루 몬 에 나 루 몬

國際的으로効力의 優秀를承認바든

에나루몬은 英國든國立醫學研究所國際會議主催 빠-쿠스博士에依하야『各種男性호루몬製劑의 効力比較試驗의結果 現著히强力하다』報告한 純正男性호루몬製劑로서…… 血色素及 赤血球를增加하고 新陳代謝를旺盛히하고 疲勞倦怠感을除去하고 視力記憶力思索力을 增進하야 精神的肉體的活動을活潑히함

에잇서서 疲勞倦怠感、睡眠障害、頭痛、眩暈、腰痛、肢端知覺異常、記憶力減退、精力減退、眼精疲勞等에써서

一般症狀을 佳良케하고 新陳代謝를 旺하고 精神的 肉體的 活動을 活潑케함

本劑는 또 靑·壯年期에잇서서 男性的特徵을 發揮치못하는 諸種官能性障害에 賞用함

【用量】 錠劑는一日三—六錠注射는每日又는隔日一—二管皮下又는筋肉內에注射함

【價格】 錠劑 [illegible] 注射液 [illegible]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
賣捌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製造元 帝國臟器藥研究所 川崎市大島町

武田發賣品

37—669(O)

佟林의東洋趣味

할리우―드의여름은 [illegible] 얼음만큼 이상한것이지만 여기서는 [illegible] 게큰키로 맘미아마어색해보인다。 이왕이면 집신이라도신고……올지 東洋에는 거저것이고 그냥내여노코도 뻔뻔스러히 서잇슬 積極的인無禮?는업다 여기어듸에 할것만안議讓이잇단말이냐? 머리에는 갓(笠)만이東洋趣다 色과線이모두 그와反對되는것을가지고잇슴을 엇더케하리요。그러나 여름에는 이러케다리를 내여노코도 能이人事凡節에구김이업고 그들이몹시부럽지안흔가?

演藝와娛樂

公稱資本金五十萬圓 朝鮮映畵株式會社創立
崔南周、朴基采、吳榮錫氏等中心으로 映畵企業에本格的進出

昨年에創立을 보라다가 事情에 依하야 流産되고 말엇던朝鮮映畵株式會社는 오래동안 消息이 업더니 갑자기 몃칠前에 登記를完了하고 創立을 보게되엿다

이 會社는 [illegible]로 同拂込을 完了하엿스며 오래동안 이方面에 勞役을 마터보던崔南周 朴基采氏外 東萊의吳榮錫氏를마지하야 튼튼한基礎우에서 朝鮮映畵企業에 積極的으로 進出하게되리라하며 토―키 시스템을 全部購入하엿다한다。 取締役社長은 崔常周氏로서너무나 오래동안 消息이업섯던朝鮮映畵株式會社가 어떠케 그다지 소문도업시 갑자기 創立을 보게되엿느냐고 뭇는記者의말에 崔氏는謙遜한 態度로다음과가티 말하엿다。

글세 하도 말성이만흔것이고 또한 지난날 우리들의 모든 事業이實行보다 말을압세우다가 失敗한나머지라 今番에도 順序는 이것을발서發表하여야 겟는데 實行을압세운다는 意味에서 創立總會도아주 秘密裡에 하여버렷습니다。나머지 問題는 오직여러분의 支持를 기다릴뿐입니다。

往十里附近에 스터디오建設

새로創立된 朝鮮映畵株式會社에서는 今番 七萬五千圓을 드려서 토―키其他의 撮影所로서 遜色업는 機械를 朴基采 李弼雨兩氏가 東京에서 사왓슴으로 이것을 臨時로 明倫町四丁目二〇五番地에 裝置하고 爲先 紀新洋行과 安碩柱氏의 作品『沈淸傳』撮影에 빌려주엇스며 今年가을에往十里驛附近에다 巨大한스타디오를建設하기로되엿다 그리고 同會社의第一回作品은 九月初旬에 撮影하기로되엿는데 方今씨나리오를 準備하고잇다。

(사진은 朝鮮映畵株式會社創立總會)

쫀・베네트 離婚訴訟提起

쫀・베네트는 얼마전에 自己 男便인 씨나리오라이터 젠・마케이를거러서 離婚訴訟을提起하엿다。 베네트가말하는 理由는 그男便에 對한愛情을 도무지가질수업슴뿐더러 男便도 벌서 실증을내고잇는까닭이라고 그들의사이에난 愛兒메린다・마케이는 베네트側에서 養育하기로도엇다。

라디오

二十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 라디오스켓취 『여름放學』 참새學校 指揮 林鴻恩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時局講演 現下時局에對하야 總督府社會敎育課長 金大羽
◇同八時 趣味講演 漁業의今昔 黃文述
◇同八時三〇分 一、新楚漢歌 二、배다라기 三、新調艇遊歌 四、군밤타령 五、夜月船遊歌 六、開城山念佛 閔亨植 李明淑
◇同九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沈淸歌中 城을나가는데 宋萬甲 皷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名) 金剛琴合奏
◇同六時 (城) 講演
◇同六時三〇分 (廣) 童謠
◇同七時三〇分 (城) 常識講座
◇同八時 (東) 合唱及吹奏樂
◇同八時三〇分 (東) 浪花節
◇同九時 (東) 科學小說

二十一日(水曜)

◇午前六時 君ケ代 人事 鹽原時三郞
◇同一一時一五分 講演 비타민四題(三) 비타민C이야기 病民病院小兒科長 李聖鳳
◇午後〇時五分 新民謠 一、春風歌 二、봄노리打鈴 三、꼿구경가자 四、織婦歌 五、千里먼곳 六、정말이요 細笛 曹松聞 奚琴 姜鶴[illegible] 金孝[illegible]
◇同六時 (名)英語講座(六의五) 若林秀三
◇同六時三〇分 獨唱 一、여름방학……모리슨作曲 二、어머님뵈오리……포스터―作曲 三、두루미……尹克榮作曲 四、그리운옛노래……슈―망作曲 五、꿈나라……엘리옷作曲 六、자장가……모―차르트作曲 七、나의집……비숍作曲 鄭[illegible]煥 피아노伴奏 崔[illegible]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夏期課外講話 鄕土食物研究法 朴萬奎
◇同八時 趣味講演 春香傳모델이야기 每日申報社 金日坤
◇同八時三〇 流行歌 一、서울의밤 二、流浪의曲藝師 三、放浪의一夜夢 四、靑天條原 五、斷腸哀曲 六、비온의파라다이스 七、雨中行人 伴奏 DK管絃團 劉鋼燮
◇同九時 一、새타령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大笒 [illegible]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名) 金剛琴合奏 …
六、세가지럼컴프리 大阪ジャズ・오―케스트라 스디론―作曲
蒐集레코―드音樂 指揮 紙恭輔
◇同六時三〇分 이야기『여름放學을이러케지냅시다』 中央高普 沈亨弼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佛專 朴允進
◇同八時 (城釜) 雅樂과草笛―全國中繼―(京城) 一、雅樂 ―李王職雅樂部로부터中繼― 乾坤歌 (釜山) 二、草笛 六字백이 指揮雅樂師長 咸和鎭 李王職雅樂部員
◇同八時一五分 (釜) 草笛와唱劇調 一、草笛 二、唱劇調 가、短歌 天下太平 나、唱劇調 沈淸歌 姜春燮
◇同八時四〇分 古談 『舊秋[illegible]宅』 崔汝成
◇同九時五分 一、執杖歌 二、遊山歌 三、제비歌 宋英淑 閔恩淑

二十二日(木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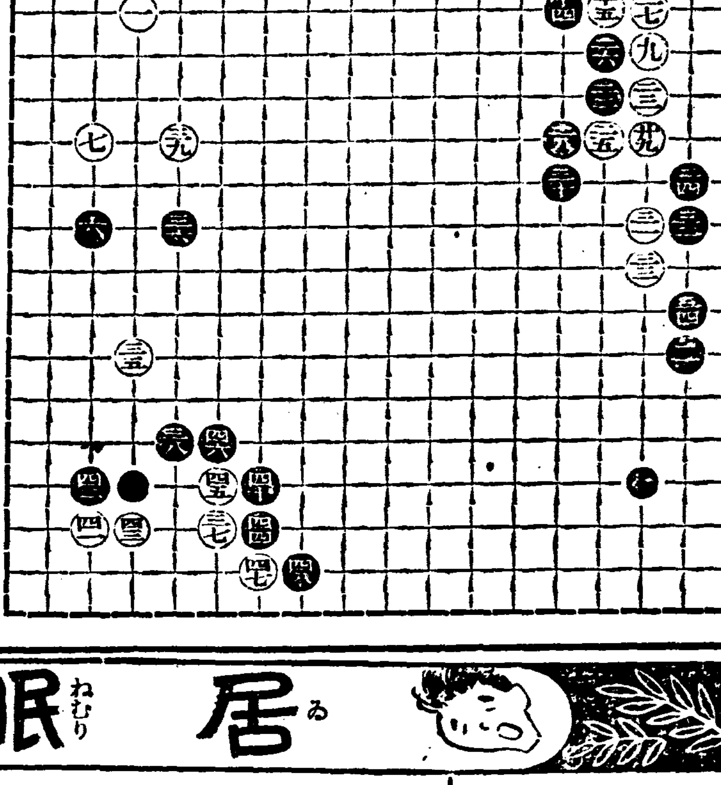
◇午前一一時一五分 講演비타민四題(四) 비타민D이야기 醫學博士 金晟鎭
◇午後〇時五分(大)木曜콘서―트 一、兒後들의춤 네으거―作曲 二、柔한카라멜 미로―作曲 三、향 고 부데잉作曲 四、프라데리에의향고 미로―作曲 五、탕고마라―드 와일作曲

第一放送
◇午後〇時五分 (大) 木曜콘서―트
◇同六時 (京) 講演
◇同六時三〇分 (東) 童話劇
◇同七時三〇分 (大) 講演
◇同八時 (城、釜) 雅樂及草笛
◇同八時一五分 (東) 晉澤
◇同八時二五分 (大) 浪花節
◇同九時 (東) 科學小說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3)

白 廣瀨仲子
黑三段 尹天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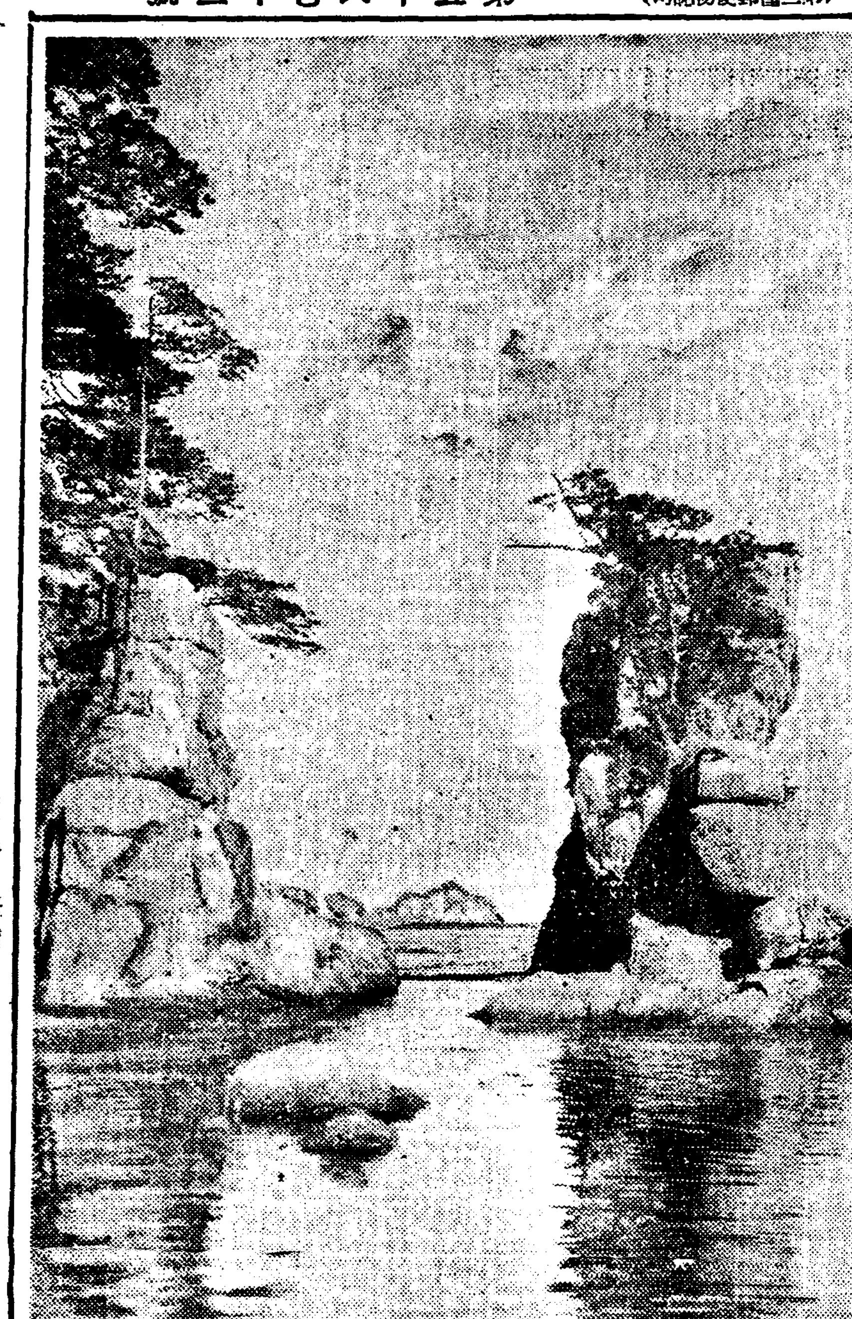
○三一 丁의十一
●三二 丙의十二
○三三 巳의十三
●三四 辰의十
○三五 卯의十七
●三六 辰의十五
○三七 辰의八
●三八 寅의十六
○三九 午의十七
●四〇 午의十六
○四一 巳의十七
●四二 寅의十七
○四三 卯의十六
●四四 卯의十五
○四五 寅의十八
●四六 丑의十八



觀戰記

白巳의十三과 卯의十七은 局面急務에 次序가 相當하고 黑辰의十 辰의十五가 接應이 不妥하니 孔明之下仲達을 可期라 白이 黑一角을 又是點領하니 其勢는 不可以侮나 其能은 可謂이로다

旅行案內



○內金剛
第一日 早朝京城을 떠나서 鐵原서 가라타고 內金剛에이르러 長安寺―明鏡臺―望軍臺를 구경하고 長安寺로도라와서 宿泊
第二日 長安寺에서 表訓寺―正陽寺―萬瀑洞―妙吉祥을도라 다시 長安寺로와서 午後에 內金剛을 出發하야 鐵原에서 가라타고 밤에 京城驛에 到着。여기에 費用은 三等車費가 七圓三十錢 其他五圓左右間 十三圓만 가지면할수잇다。

○外金剛 (二日間)前날밤 京城을 떠나서 車中에서 宿泊
第一日 安邊에서가라타고 庫底에 이르러서 叢石亭을 구경하고 庫底를떠나 外金剛에 到着 溫井里에서 自動車로六花岩―寒霞溪―舊萬物相―新萬物相을 구경하고 다시 溫井里로 도라와서 宿泊
第二日 溫井里에서―神溪寺―玉流洞―九龍淵을 도라 溫井里로 와서 다시 海金剛을 往復하고 外金剛을 떠나 安邊에서가라타고 車中에서宿泊 그 다음날아침에 京城에到着 여기에는 三等車費와寢臺料를더 허서 九圓八十錢까지 모두二十圓이면足하다。

○內外金剛 (二日間)―其一
第一日 早朝京城發 鐵原에서가라타고 內金剛에到着 長安寺―表訓寺―萬瀑洞―摩訶衍―妙吉祥―久米山莊에서宿泊。
第二日 毘盧峯―九龍淵―神溪寺―溫井里를도라여기서 自動車로 舊萬物相往復外金剛發―安邊에서 가라타고 車中에 宿泊하야 그다음아침에 京城到着。
費用은 三等車費 八圓五十五錢을合하야 十四圓이면足하다

○內外金剛 (三日)前夜京城發
第一日 安邊에서 庫底에가서 叢石亭을 探勝하고 外金剛着 溫井里에서 九龍淵을 구경하고 다시 溫井里에도라와서宿泊
第二日 溫井里에서 自動車로 六花岩―萬物相―寒霞溪―溫井里 여기서다시 內金剛에가서宿泊。
第三日 長安寺에서 明鏡臺往復하고 表訓寺―正陽寺―萬瀑洞―妙吉祥을도라長安寺―內金剛―京城을밤에 到着한다。 三等車旅費를 合하야 約十八圓이면된다。

○內外金剛 (三日間)―其二
第一日 아침일직이 京城을떠나서內金剛에到着 長安寺―表訓寺―須彌庵―永郞峯―毘盧峯을 거처久米山莊에서宿泊。
第二日 毘盧峯―九成洞―朝陽瀑―上登峯―三仙岩―新萬物相―六花岩에서 自動車로溫井里 여기서宿泊
第三日 溫井里에서自動車로 神溪寺에 이르러 玉流洞―九龍淵―上八潭―神溪寺―溫井里 海金剛―外金剛驛到着 여기서떠나 그다음아침에 京城着。 旅費는 三等車費八圓五十錢을 너허二十圓이면된다。(終)

(사진은 叢石亭)

一生의浮沈을決하는 男性器缺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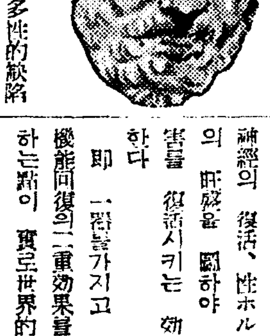
發育不全・機能障害도 이러케해서回復하시라

物理的健全發育法

ホリック療法의新發見

男子 로서性的缺陷이잇다는것은容易치안흔 大問題로 천재남과가티需要할수도업고 設令娶妻엿다해도 永續할수업고 或은 妻의不倫行爲로말미아마 一生의破滅을 가저오게하는일도잇다 뿐만아니라性的欠陷은 **精神** 的으로도 큰影響이밋치는것으로 漸次男性的特質을잃고 乃終에는性的破綻을 招來하야 世上에容納치못하고 또全身的으로도 病弱老衰에빠지기쉽고 平生을 病人同樣의身勢가된다。이무서운 **青春** 病을救하는 適切療法으로서 發見된『ホリック療法』은마치물에빠지려는者에 救命器를주는 感이잇다는稱讚을밧고잇서서 정말 性欠陷者의驚異的福音인데 그應用器械『ホリック眞空水治器』의效果는 이미醫學博士五十餘氏의 實驗證明한바로 더욱 **自宅** 秘密安全治療에 適當하야只今엔 絶讚好評을밧는가운데잇다 器械는無代進呈인『性의新知識』을꼭一讀하라

性器短小・機能衰弱의 發育・復活에
ホリック眞空水治器의效果



性器發育不良으로 一定한 年齡에 이르러도 小兒와가튼短小性器(屈曲、包莖等)또는 手淫、亂淫等에 因한性的 神經衰弱(陰萎早漏 遺精 夢精等)에對한 正常發育乃至健全復活法은最近에이르기까지그適切한療法이라고할만한것이업서서 이러한幾多性的缺陷者는 다만一身의 不幸을 嘆息할뿐이엿스나마친내그唯一療法이 米國醫科大學敎授ホリック博士에依해서 創見되여 그學說을基礎로하야 完成된것이 即 眞空水治를 併用한 物理療法『ホリック眞空水治器』다 本器의 作用은 眞空吸引力을 性器에 直接應用하야 多量의血液을 流集시키고 水治效果를作用시켜서 一種의 理學的연合作用을 이르켜가지고 細胞의增殖發育을 促하는 同時에 生殖神經의 復活、性ホルモン內分泌의 旺盛을 圖하야 性的機能障害를 復活시키는 效果를 發揮한다 即 一器를가지고 發育促進、機能回復의二重效果를 나타내게하는點이 實로世界的發明이라는所以인대 至今에는 海外輸出도 益益繁盛해진다 患者는 本器의效果를信賴하야 속히秘密히治療하야 速히苦惱의一掃에 努力하시기를 懇切히勸하는바다

無代進呈 圖入說明書・性의新知識
◇性에關한 一般的知識은 至今에는普通常識으로되엿습니다◇興味와實益잇는 性의新知識을公開滿載하고 療器의內容도 詳述한『圖入說明書』를奬呈로 御申請次第別名으로 無料密送함 곳申請하시라

醫學博士五十餘氏 實驗證明推奬
登錄商標 ホリック眞空水治器 金五圓 送料 內地 二五錢 植民地 五五錢
◇ホリック包莖安全器 包莖=切らずに、自分で秘密に成形できる 金四圓 送料 內地 一五錢 植民地 四二錢
―說明書添付― 別名で密送
◎代金引換小包は各送料十五錢增
◎效果不完全의模造品有む ホリック眞空水治器를求하시라
東京市芝區神谷町十八の八五 東京 新療法研究所 電話芝三一三二 振替東京七七三九

朝光八月號發賣中

戰慄할怪奇座談會・文士들의避暑地讚・醫學上으로본孫基禎體格・蘇聯의肅軍工
作・巴里外交舞臺六年間・名士들의感激一場面等大豪華版
註文은지금곳하서야합니다!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振替京城五八七八番・定價四十錢)

中部版

昨年水害地江原道에 暴雨襲來로交通杜絶
平康一六三미리를最高로
降雨는아직도繼續中(十九日午前十一時現在)

【春川】금년도수량은 미면할형편으로 지난십팔일아츰부터 아직까지각지에호우는 끄님업시내리는데 십구일오전열시 현재의강원도각지의 강우량은 다음과갓다

春川 一三三耗 麟蹄 一三六耗 淮陽 一七一耗 襄陽 一〇〇耗 平昌 七八耗 寧越三八耗 原州 七八耗 華川 一五〇耗 金化 一三一耗 鐵原 一四三耗 平康 一六三耗 伊川 一四九耗

【春川】십팔일아츰부터나리는비는정오가지나자 본격적으로 나리기시작하야 각하천(河川)이증수하여 각지의교통이 두절되엿스며 아직까지폭우가 쏘다지는중임으로 당분간복구가 무망할터이라하며 교통이두절된선로는 다음과갓다고한다

華川—楊口 華川—金化 麟蹄—洪川 江陵—杆城 江陵—平昌 原州—堤川 原州—忠州 原州—寧越 原州—平昌間線路

라하야 일반의호평이 자못큽다

平康完全解渴

【平康】평강일대에는 우량이부족한 금년농사가 크게 우려되던바 지난십팔일새벽부터 비가시작하야 십구일 오후오시까지 폭주한 우량은 실로 이백미리나되야 이천、평강간 춘천、평강간 정기자동차까지 불통이되엿스며 금번가치만흔 비가오기는 근년에드물게보는일이라한다 더욱 평강군현내면갑토리 주민의생명을 좌우하고잇던 오백정보나되는논에는 그간원천수가 부족한데다가 심한한발로인하야 논바닥이자방으로 갈라지고 벼포기는 말라죽을지경이엇스나 부활의약수가 내려와서얼굴에는 우슴의 꼿이피게되엿다

楊州郡各面長 普校長會議

【楊州】지난십구일아침아홉시부터 양주군내 면장과각보통학교교장회의를열고 현하시국에대한인식과 북지사변의현상을 널리알리어 일반에게 리해시킬 조선총독의훈시의전달이 잇섯스며 그외로비(推進)제조독려의 구체적방침과 동외도로의 개수(改修)와 금번 림우기의 수해방비등의 협의가 잇슨후 정오에회의를 마치엿다

四百餘名京城健兒團 牛耳洞에서野營
夏休中에心身을鍛鍊

경성건아단(健兒團)에서는 오는이십이일부터 팔월일일까지부내삼십오개 공립보통학교아동중의희망자 사백이십구명과 교도원(敎導員)오십일명으로서 우이동(牛耳洞)에서 야영(野營)을하고 심신을 단련하기로되엿다

女高淑明兩校 同窓會總會

시내수송정 숙명녀자고등보통학교에서는 그학교동창회인 숙녀회(淑女會)총회를 이십일일오후한시부터 모교강당에서 개최한다는데 비가올지라도 기어히모이기로하고 회비사십전은 그날가지고오기를 바란다한다 또지금은 재동에잇지만 옛날에는경운동에잇든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도 그학교동창회인 경운회(慶雲會)총회를 오는이십일일오전열한시부터 모교강당에서 개최한다는데 특히 고황경박사(高凰京博士)의 축하회를 겸하야 열기로하고 회비오십전식그날가지고오기를 바란다한다

金允福翁의 銅像除幕式

【仁川】금년봄부터 유지수씨의 발기로 김윤복(金允福)씨의동상 건립사무에분망하든중 몽상도사게의건장 김복진(金復鎭)씨의로

仁川永化女校의 運動場을擴張
費用은後援會負擔

【仁川】삼십년이라는 긴력사를갖고『밋슌스쿨』로써 그사명을다하야 만흔재원을 사회에보내인 인천영화(永化)여자보통학교에서는 상하양운동장이 균형되지못하야 항상전면의 발분박게쓰지못하게됨을 유감으로 생각하고잇든동교후원회에서 지난번회의에 약천여평의 운동장을공비 일천이백원으로 확장키를결의하엿다는바 동운동장이 준공되면 운동회는물론 아동운동장으로서도 만흔도움이 되리라하야 갈망하고잇슬뿐아니라 독지가의 각별한후원이 엇기를바란다한다

萬難橋今秋完成

경인일대(京仁一帶)의생명선이되는 경인산업도로개수포장공사(京仁産業道路改修鋪裝工事)는 착착진설되는중인데 그중에서도특히 난공사인 영등포 오류동(永登浦梧柳洞)사이의 만난교(萬難橋)공사는 작년칠월에 착공한이래 순조로진행되여 이대로나아가면 오는구월중에는 완성될예정이라한다 그런데 만난교는그기리가 이백이메터구이요 폭이팔메터로서 라―멘식철근콩크리트인데 총공비는 십일만오천원이나된다한다

新知事新議員初會合 京畿道臨時道會
二萬六千圓防空費原案可決
神宮參拜코即日閉會

이번북지사변(北支事變)에 의하야 일층더 그필요를절실히느끼게된 방공방호(防空防護)에관하야 그에대한 도비 이만륙천일백팔원을 게상하는 긴급림시경기도회(緊急臨時道會)는 예정대로 이십일오전아홉시부터 경기도회의실에서 신임의원 삼십구명 참집하에 감자(甘蔗)지사의 사회로 개최되엿다 개회벽두에 임기만료된 부의장의선거를하엿는데 삼십륙대일로 한상룡(韓相龍)의원이 륙임키로되엿다 다음 감자지사로부터 지사취임에대한 인사와 비상시국에대한 도비(道費)계상에관한 자세한 연술(演述)이엇섯다 그리고 역시 한상룡의원의 발의로

동양평화와 제국의 권익옹호를 위하야 혹서를 무릅쓰고 일에분투하야 잘 제국의 국위를 발양하고 잇는것은 국민의 감격하야 마지안는바이다 본도회는 이에 긴급회의를 열고 개회벽두에 도민을 대표하야 우리의 충용한 출정황군 장사에대하야 심심한 경의와 만공의사의를 표하는 동시에 무운의 장구함을빈다 경기도회의장 香月支那駐屯軍司令官 閣下

이상과가튼 격려전보를 치기로 결의하고 또 하전직치(賀田直治)의원의발의로서 회의가 끗나는대로 회원일동이 황군의무운장구를빌기위하야 조선신궁에 참배하기로 일치가결하엿다 그다음 신곡(神谷)내무부장의 방공방호비 이만륙천일백팔원인 의안에대한설명이 잇섯고 이어서송성진(宋成鎭)의원이 이러서서의안의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가결키를 발의하야 만장일치가결후에 어도회를 무사히끗마치고 일동은신궁참배를하엿다

仁川永宗島覆船때의 四個屍體또發見
今後의事態가注目處

【仁川】인천부영종도(永宗島)근방에서 삼신기선(森信汽船)갑제환(甲濟丸)의전마선이 선객을만재한채 전복되야 선객십이명만 구조되고 그외의선객은 수중고혼이되엿섯스나 그수효가 명확지못하야 회사측과조난자간에문제 가장중대화하고잇서인천서에서는 엄중취조를 행하고잇든바 지난십구일까지 영종(永宗)근해에서 공주군 계룡면 봉명리(公州郡鷄龍面鳳鳴里) 유광렬(劉光烈)외에신원불명의 시체세명을 발견하엿다는바 이것만으로도 당시에 승선한 인원십륙명이라 전마선정원십오명보다는 초과하고잇슬뿐아니라 이후로 또발견되는 시체가 몃치나될는지는모르나 금후의 사태진전이 가장 주목된다한다

會員募集大活動
帝國軍人後援會에서

제국군인후원회 경기도지부(帝國軍人後援會京畿道支部)에서는 군사부조법(軍事扶助法)적용과아울러 군인가족또는 유족의구호를 철저히하고저 요사이회원을 널리모집하는중이라한다

國旗五百本을寄贈

【陵谷】고양군 지도면릉곡(高陽郡知道面陵谷) 경기도도회의원 리응호씨(京畿道會議員李應鎬氏)는 출정군인의 송영(送迎)하는자에게 대하야 국기오백본을기부한다는뜻으로 소할릉곡경찰관주재소(所轄陵谷警察官駐在所)에간청한 일이 잇슴으로 수석만미부장(首席滿尾部長)은 이것을감격히 바다 즉시 일반면민과 학생에게 분배하야 주엇다는데 시국이 비상한 이때기특한행위라하야 일반의호평이 자못크다

議政府서도祈願祭

【楊州】지난십구일아침열시부터 의정부신명신사(神明神祠)에서 시둔면(柴芚面)주최로 무운장구(武運長久)국위선양(國威宣揚)의기원제를 거행한바 각학교교장 군내각면장 각관공서 애국부인회 각소방조 일반시민과 각보통학교생도 약천여명의참배자로 성대히거행하고 만세삼창으로끗을마치엿다

全京城軍을威壓하는 爀爀한戰歷!
鄕土의『링』에初登場하는李、朱兩君
東京各大學의俊銳들

本社後援

만도권투『팬』의 흥미와 기대를 담뿍 이끌고잇는 동경류학생 권투군(東京留學生拳鬪軍) 대 전경성선발군(全京城選拔軍)의『아마튜어』권투대항전은 오는 이십사일밤 여듧시부터 경성운동장(京城運動場)특설『링』에서 장쾌무비한 호화막이 열리게되엿다 권투조선의 총아(寵兒) 황을수(黃乙秀)군이 세계무대에 재일보를 인친지 어느듯 여섯해 뒤따라지난해에는 리규환(李圭煥)군이 동경(東京)올림픽에 약진하는 우리권투계를 위하야 분투한바잇섯거니와 닥처올동경올림픽에는 멧명이나 또다시 국제무대에 등장할수잇슬것인가?이번대항전에 출장하는 전원이 그제일후보에 선발될 맹장들임을 알때에 성원과 격려를 앗기지안커니와 그들의 혁혁한 전력(戰歷)과 특기(特技)를 이에소개하야 또 겸혼대항전의 흥취를 도읍고저한다

留學生拳鬪 招聘戰前記 ①

來廿四日 午後八時 京城運動場

李海龍(廿三歲·日大·目黑中學出身)

李海龍君은 京城出生이면서도 그의威名이 京城에 알려지지안흔 無名勇士로서 東京各大學들라이級中에서 가장將來를囑望밧는新銳이다 右『스윙』에 KO펀취를가지고잇스며 百折不屈하는 君의鬪志는 留學生軍의先鋒에서기에 足할뿐아니라 처음으로 鄕土의『링』에『데뷰―』하니만치 自己가마튼相對는 꼭이기고야말겟다는 熱烈한決心을품고잇스며 只今까지의戰績은 五戰三勝一敗 一無勝負이다

朴炳杰(廿一歲·明大·培材高普出身)

朴炳杰君은 明大프라이級의王寶로서 일즉이 培材高普時代부터 京城舞臺에서 그의勇名을 떨친바잇섯거니와 君은『아웃·빡씽』이特技인데 左『잽』과 右『후크』에 相當히强한『펀취』를가지고잇다 出生地는 平北龍川이며 戰績은 廿四戰 十七勝七敗이다

朱炳鎭(廿一歲·明大·大邱嶠南出身)

朱炳鎭君은 明大를 代表하는 빤탐級의 慧星的存在이다 君은 輕快한『풋웍』과 威脅的인『완투스트레―트』에『더아웃·펀취』를 자랑하며 必勝의意氣를 보이고잇다 只今까지의 戰績은 十五戰十二勝三敗이라하며 出生地는大邱이다

朴春緖(廿四歲·日大·專門檢定合格)

朴春緖君이 拳鬪를 始作하기는十六歲때부터이니 實로九年間의 長久한 體驗을가진『빡써―』型의拳豪이다 君은昭和六年부터數次거듭하야 全朝鮮아마튜어의『풀라이』또는『빤탐』選手權을 獲得하엿든 選手로서 只今까지의 戰績은九十五戰 八十九勝六敗이다

(寫眞은 上으로부터李海龍、朴炳杰、朱炳鎭、朴春緖諸選手)

開城南門通서생긴慘事
작대기에찔려서出血·危毒
無心한장마ㅅ비에 굼주리는지게꾼

【開城】장마비 오락 가락하는 지난십구일 그래도 무슨사품이나 어더걸릴가하고 개성남대문부근을 배회하든 부내남본정(南本町)륙백십일번지 에사는 장원봉(張元鳳)(?)은 때마츰 동일오후두시오십분경 자동차에내린 손님의 짐짝을 하나맛게되자 지게를질머지고 단숨에뛰여가다가 고만실수하야 어푸러지는동시 손에들엇든 지게 대데기가 그의 오른편 하복부(下腹部)를 오추가랑이나 돌코드러가 마츰내그는 한되가량이나 피를쏫고 현장에 고만졸도하게된바 동리들의 구원으로 즉시 부근대동병원(大同病院)에서 응급수당을가한바 원체다량의출혈로 전신에 맥이 잘통치못해서 생명이 위독하다고한다

運轉手續續檢束
運賃을中間橫領한
江原道運輸의王、自動車部에 頻發하는不祥事件

【春川】강원도는 산간지대임으로 자동차가유일한 교통기관의하나가되여잇다함은 재언할필요조차업스며 자동차업이 타도에비하야 상당히 발달되여잇는데근자 강원도를 중심무대로 활동하고잇는 모회사자동차부에서는 그간 운전수들이 중간운임을 횡령하여오든 사건이탈로되여 운전수로는 벌서송국되엿고 기타수명도 속속소환되여 취조를밧는중인데 사건이 상당히광범위로 전개될터이라고 일반이주목을하고잇는바 관계자들은금후의태도를 극히근신함이 조흔것이라고 일반의여론이 자자하다고한다

피아노一臺寄贈
春川公普同窓會에서
母校의改築擴張記念으로

【春川】약진춘천(春川)은 각방면으로 상당한 진전을보이고잇는데 그중춘천공보(春川公普)를신축확장하게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금추에락성을하게되는바 금번동교동창회(同窓會)에서는 적립금일천사백원중 일천원으로 모교(母校)에『피아노』한대를 기증하기로되엿는데 일반의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地方人事

▲金一濟氏(楊州金組書記)二十日 事次本社楊州支局來訪

開城 全朝鮮團體庭球大會

▲時日 八月一日午前十時
▲場所 水岩山코―트(入場無料)
◇主催 高麗靑年會
◇後援 朝鮮日報開城支局

蓄音器祭記念臨時發賣 七月一日發賣
新民謠 해당화필때 鮮于一扇
月을울고 金龍煥
포리도―루

朝報案內

京城培花學園 生徒募集
商業科 中等科(就職希望者의爲에 中等學校入學準備)
願書締切 七月三十一日
事務所 東西軒町三八ノ二〇

訥言專門矯正院
重難한訥言도全治 案內書無料進呈
京城府梨花町二〇四ノ三

讓寫場
研究次渡東 新設町八七 漢陽寫眞館으로問議하시오

男女 社員及男女書記採用 希望者는至急來訪
京城榮樂町一〇四 極東洋行

高級外務社員招聘
二十五歲以上四十五歲迄內鮮人身元確實하고志操堅固한者 希望者는履歷書持參本人來談할事 但要保證人
京城府永樂町二丁目 共濟無盡株式會社

恩給 五年分以上低利貸 內書進呈
京城府中學町一四 電話(光)二七五八番 金星商會

第六十期 貸借對照表 昭和十二年六月末日現在

資產	金額
未拂込資本金	一五三、二〇〇・〇〇
土地	一二〇、〇〇〇・〇〇
建物	一四〇、〇〇〇・〇〇
什器	一、〇〇〇・〇〇
有價證券	三三、三三九・五〇
諸預金	一〇、六九四・九九
貸付金	三七、〇九五・〇〇
流入典物	三四、八五〇・〇〇
假拂金	三六、〇九四・七〇
金銀	二、七六二・五〇
合計	五七二、〇三五・八六

負債	金額
資本金	五〇〇、〇〇〇・〇〇
法定積立金	三四、九五〇・〇〇
別途積立金	七、一〇〇・〇〇
慰祝基金	六、〇〇〇・〇〇
前期繰越金	二、八九六・七四
當期純益金	一六、五九八・四〇
假受金	四、四九〇・七二
合計	五七二、〇三五・八六

昭和十二年七月 廣藏株式會社

小資本大成功
京城府蓬萊町一ノ二八 榮信社工業所

港口一夜 後日譚 借房哀話
王平 全玉 尹鍵榮
포리도―루

朝鮮文藝會作品發表
來日 崔南善詞 李鍾泰曲 玄濟明
동산 崔南善詞 李冕相曲 鄭勳謨
포리도―루

奏效如神
鷄冠蚊香
鷄冠蚊香의絶大한信用은 實로그効力에잇습니다
모기향을사실때에는불이오래타고효력이 제일조흔『게관모기향』이라고차저주십시오
大阪 三浦十佐 大日本除蟲菊株式會社

歯痛に ソレ今治水

21日ヨリ
遞信省朝日所載 吉屋信子原作 佐々木康監督
好漢上原の大膽極まる演技!戰慄と昂奮と迫力を呼ぶ逞ましき男の世界!上原扮する神秘な男!の復讐奇譚!
神秘な男
北支事變特報ニュース 二、三、四、五報上映中 後報到着次第直に上映
新樣式五百萬弗音樂映畫! アメリカ近代ジャズの完成!スウィングの粹!
ユニヴァーサル特作 ラルフ・マーフィ監督
ドリス・ノーラン ジョージ・マーフィ ガートルード・ニーセン ヒュー・ハーバート 共演
今週に限り午前十一時半開演
明朗色時代
御家族連 明治座

小兒肝氣 驚風 乳滯 青便엔 영아환
全鮮各有名藥房販賣
京城府授恩町 朝鮮商會

認可 電醫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
全鮮唯一認可 (失業絶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專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經濟解說 世界經濟動向

支那新幣制危機 ⑦ ……李健赫

北支事變으로 一層不健全한 通貨膨脹가 트나 他從多의 不合理的 農業物收作、一般財界의 恢復으로 보면 正當한 膨脹이며 幣制改革에 依하야 物價低落의 傾向이 是正되어 一九三六年十二月의 上海卸賣物價는 前年十月에 比하야 二六%二의 昻騰이고 金利는 一千元에 對한 日步一角(年利七分三厘)의 高水準에서 〇角八(年利二分九厘二毛)의 低金利로 되엇다 그리하야 幣制改革이란 劃期的 大事業은 完成에 基礎를 두고 金融情勢가 叙上과 가티 改善되엇다 한다。

가? 中國銀行年報에 依하야 보면 昨年度의 金融情勢는 新幣制가 絕大한 信用을 받고 銀과 絕緣한 法幣의 價値를 維持安定시키기 爲하야 通貨統制를 하얏는데 新法幣의 流通이 擴大되엇고 銀의 國有化가 잘 進行되어 昨年末까지 通貨準備委員會가 取得한 銀現은 政府三銀行 從來의 保有分을 合하야 三億元을 超過하얏다 한다。發行券의 一元化에 伴하야 政府三銀行의 紙幣發行高는 一九三五年十一月三日부터 一九三六年末까지에 四億二千七百萬元에서 十一億四千三百萬元으로 增加되엇는데 이 發券增加

×

經濟各分野의 展望에 잇서 먼저 貿易을 보면 (單位百萬元)

	一九三四年	三五年	三六年
輸入	[illegible]	九一九	九四一
輸出	[illegible]	五七六	七〇六

總額 一、六三〇 一、四九一 一、六四七 入超 四九四 三四三 二三五 即 輸出入이 모두 前年에 比하야 增加되엇는데 特히 輸出이 增加되엇음으로 入超는 大幅의 減少를 보앗고 貿易內容을 數量과 價格指數에 就하야 보면 (一九三三年을 基準)

×

國內農工商業의 現勢를 交通方面을 보면 如左하다。

▲農業 一、豐作의 結果 一九三六年度의 食糧品生產高는 前年의 十八億六千萬擔에서 十九億三千四百萬擔으로 增加되엇다 二、農產物價의 騰貴에 依하야 農家收入增大

▲工業 如左한 原因에 依하야 國內工業이 依據되엇다 一、金融逼迫의 緩和 二、農村購買力의 增進 三、密輸防止成功 四、物價의 全般的騰貴

▲交通 一、一九三六年以降 支那는 鐵道五個年計畫을 樹立하고 全長八千粁의 達成을 目標로 一九三六年에는 粵漢鐵道를 비롯 現在鐵道延長의 約二倍(八千粁는 初年度를 終하얏다 二、鐵道建設에 對한 外資流入에 成功 三、自動車路는 前年의 九萬六千粁에 比하야 一九三六年에는 十一萬粁로 擴張되고 工事中의 것이 一萬六千粁이다 四、航空路는 從來의 一線에 比하야 一九三六年 四萬九千元으로 前年度에 比하야

二十六年度豫算(七月一日부터 明年六月末)은 立法院會議에서 通過되엇는데 이것에 依하면 歲入歲出 十億六千萬元이다

× 農民이 總人口의 八割을 占한 支那에 잇서서는 一九三六年은 記錄的인 豐作과 農業物價의 騰貴로 農家收入도 增加되엇지만 經濟現下의 劃期的인 問題는 農村更生으로서 이 點에 對하야 特히 努力하지 안흐면 農業의 本質的인 再建設이 至難할 것이다。다음 工業部分에 잇서서는 輕工業의 發達로서 그 品質의 粗劣等이지만 現在의 生活程度로 보아 國貨伸長이 될 것이며 外國側으로 보면 對支輸出의 重點을 輕工業中 比較的 高級品 乃至化學工業及 重工業으로 되어 갈 形勢이며 交通建設도 產業前進의 先決條件으로 外國의 鐵道借款을 中心으로 한 活躍이 注目된다한다。

總督府追加豫算 七十四萬千圓

産業經濟關係만四十四萬九千圓

이번特別議會에提出

來二十三日부터 開會되는 特別議會에 提出될 昭和十二年度 朝鮮總督府 特別會計追加豫算總額은 七十四萬一千圓으로 그中 産業經濟關係가 四十四萬九千圓인데 그內容은

一、産金獎勵施設(三三一千圓) 中央政府의 産金增産政策에 順應하며 朝鮮의 産金事業을 더욱 獎勵하려는 것으로、探鑛費의 補助、鑿岩機 增設의 補助等이 主되는 것이고

一、熟練工養成(一六千圓) 電氣와 機械方面의 熟練工이 大量的으로 必要함에 鑑하여 熟練工養成의 講習所를 設置하려는 것으로 于先今年에는 普通學校卒業生約百名을 六個月間 講習케하려는 것이다 앞으로는 常設的으로 講習所를 設置케될 것이다

一、外國爲替管理取締의 强化 其他(三千圓) 輸入爲替管理强化에 따라 이에 所用되는 費用 一部가 잇고 大部分은 滿洲國治外法權撤廢에 關聯한 退職手當이 包含되어 잇다

熟練工養成

別項과 가티 總督府에서는 特別議會에 追加豫算으로서 熟練工養成費 一萬六千圓을 要求할 터인데 右는 日本內地의 熟練工養成方策에 順應하야 躍進朝鮮工業에 備키爲하야 熟練工中 現在가장 不足中인 電氣工 機械工의 養成에 注力하자는 것으로 本年度에는 右經費에 依하야 朝鮮工業協會에 補助金을 交付하고 養成期間은 一年으로서 電氣機械의 職工을 各百名식 依託養成케할 것인바 豫算通過되기를 기다려 今秋九月頃부터 實施키로 되엇다 明年度에는 右養成機關을 擴充하는 同時에 熟練工 全般에 亘하야 實施할 方針이라 한다

正貨準備評價고처 爲替調整資金設定?

【東京電】政府는 正貨準備評價換을 斷行하야 爲替調整資金을 設定한다고 傳하는 外에 北支問題의 不安이 不去하고 短資市場도 下旬에 들자 벌서 緩和를 想像하게 되엇기 때문에 市場은 아직 警戒氣分이 濃厚하야 甲號五分은 五錢高이엇스나 四分利 四分半利는 繼續하야 五錢低로 軟調를 繼續하고 實物도 閑散無活氣裡에 推移하엿스며 外貨債도 依然買物은 傍觀되어 佛貨十錢低、米貨는 五分半 六分半 共히 五錢小弱을 示하엿다

京仁商船創立 卸商脫退

京仁商船의 創立은 十八日午後三時부터 創立總會를 開催하엿는데 當日決定되지못하고 十九日에 다시 協議한 結果 卸商聯盟側은 脫退하고 齊藤氏를 中心으로한 一派는 日本內地의 米商人參加를 어더 新設되엇스나 卸商脫退로 今後가 注目된다한다

事變을憑藉하고 華商이取引攪亂

朝鮮內綿布商狼狽

京城仁川의 華商은 一兩日間 連하야 突然 名으로 綿絲布商에 對하야 一、北支事變以來 各銀行은 華商에 對한 手形割引 其他取引을 停止하야 金融難에 陷하얏다 二、따라 旣約定은 此際解消하고 三、支拂代金의 支拂猶豫를 하기 바란다는 旨로 通告하야 왓스므로 綿絲布商側에서는 狼狽하야 銀行側에 照會하얏는바 銀行은 全然 華商에 對한 取引停止及 金融을 引締하고 잇는 事實이 업고 華商側의 最近의 綿絲布人絹等의 値下를 "카바ー"하기 爲하야 銀行側의 金融引締에 憑藉하고 綿絲布商과의 取引을 解消하려는 것이 判明되어 綿絲布商側은 總督府外事當局과 銀行側과의 對策을 講究中인데 朝鮮內의 華商과 綿絲布商의 取引方法은 現物取引은 手形決濟에 끗치고 先物取引도 保證金을 밧지 안코 자못 "루ー즈"한 方法을 取하고 잇서 綿布商의 競爭이 如何히 激烈한가를 示하는 것으로 그 根本的 對策으로서는 綿絲布商의 自制에 依하야 取引方法의 完全 即 一、現金取引의 遵守 一、保證金의 徵收를 하는 外 업다고 보고잇다 한다

을 決定하얏슴으로 兩地人絹染 共히 色染業의 對立抗爭이 去益白熱되어 地理的有利條件을 利用하로 化케되엇는데 朝鮮人絹染色同業組合側에서는 應戰準備가 整頓되어 積極的으로 競爭을 하게되엇다 한다

入超累計額 遂七億突破

【東京】大藏省發表에 依하면 七月中旬貿易은 輸出八千八百九十八萬六千圓에 對하야 輸入은 一億八百萬二千圓으로 差引入超는 一千九百一萬六千圓을 示하야 入超는 激減되엇스나 一月以降의 入超累計는 七億을 突破하기 二百七十二萬七千圓을 示하게되엇다 (單位千圓)

輸出	八八、九八六
輸入	一〇八、〇〇二
合計	一九六、九八八
入超	一九、〇一六
一月以降入超累計	七〇二、七二七

中央無盡株 加入者配定

朝鮮中央無盡會社의 公募株는 人氣旺盛으로 相當한 申込에 達하고잇는바 마감까지에는 公募一萬五千株의 十倍內外에 達할 模樣이다 그리고 "푸레미엄"은 最高十圓가량 最低四、五圓가량으로 區區한바 國民으잇스나 結局五圓內外가 至當하다고 보고잇다 그런데 三社의 加入會員配當의 二萬七千株는

十萬圓以上	六〇人	六〇〇株
五萬圓以上	一六五人	一、〇〇〇株
三萬圓以上	一二二人	三、〇〇〇株
一萬圓以上	一、〇三〇人	三、〇〇〇株
一萬圓未滿	三、〇〇〇人	一〇、〇〇〇株

(申込者에對하야抽籤)

三社株主社員과 三社社員의 新株主가 六百人、그리고 公募一萬五千株의 配當一人平均三十株로 보고 五百人으로되어 全株數十萬株에 對한 株主總會는 四千六百五十人의 多數로되어 그平均은 一人二十二株强이라 한다

染工聯과一戰

染工聯에서는 十七、十八兩日間 協議會를 開한 結果 朝鮮의 人絹

堆肥製造高

六十七億六千萬斤

農林局發表 昭和十一年의 堆肥製造高 成績은 農家戶數二百八十二萬四百九戶、製造量六十七億六千七百六十四萬一千九百九十八貫으로 計畫에 比하야 四億六千二萬一千九百二貫의 減少이고 施肥耕地面積은 四百四十二萬四千八百二町八段步이다 그리고 農家一戶當 製造量은 二千四百貫이고 段當施肥量은 百五十三貫으로 되어잇다 各道別製造高 及 前年比는 如左하다

道	十一年	前年比增△減
京畿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合計	六、七六七、六四一	[illegible]

株式 低價買支 堅强

今日의市勢 (二十日)

前場軟化 昨後場反弛裡에 止場된後 北支情勢는 南京政府의 態度硬化로 漸次緊迫의 度를 加하고잇다고 傳하야 全面的衝突은 不可避일것으로보고 朝來의 人氣는 依然軟化하야 寄付는 鐘新三圓三五錢落을 筆頭로 東新一圓九、大新一圓二低로 모다軟調裡에 寄付하엿는데 寄付는低落되엇스나 人氣는 反히 低價買拾的態度가 强하야 下支狀態裡에 前場을 마치엇다

後場反撥 後場은 鐘新二圓七十錢高、東新一圓五十錢高로 反撥裡에 寄付한後 强調를 보엿스나 高價警戒로 보합되엇다

賣幕人氣警戒

北支事態의 惡化를 傳하야 全面的衝突은 時間問題視되는데서 今朝의 寄付는 實物의 增加로 一落을 宣告하얏스나 벌서 北支事態로서는 悲觀할 餘地가 업다고 보는 仕手의 强硬態度와 低價만보이면 買拾하는 生保側의 買物로 低價는 下支되고 後場는 反高裡에 强調를 示하게되터인데 時局을 材料로 賣込하면 買込할사록 反高를보이는것이 底入前

在華紡等反落

今朝의 主力株軟調로 鐘株도多少軟化하엿스나 大體로는 小口이오 北支事變으로 影響이 가장 만흘것으로보이는 在華紡이 모두反落되엇는데 日華紡의 二圓五低인 三五、五는 그代表的인것이엇다 無配當想으로 連日續落하고잇는 北樺油는 다시三圓八低로 二六圓丁이되고 東京人絹도 六七、〇으로 一圓低이며 拓新도 一圓低로 二十八圓丁이며 其他日曹新三低인 三三、五 商船新三九、〇인 五低 豐水新五六、五인 三低等으로 모두少弛이나 神戶製鋼은 不變唱이엇다

實物前場取引

▲鐵業開發 八六、五 ▲東拓新 二六、七 ▲商船新 三九、〇

十錢

○ 朝鮮서도熟練工養成 非常時일수록 일잘배워야할일

○ 入超는遂七億突破 生產力을擴充키爲한것이니 할수업는일?

○ 東京國債市場에서는 正貨準備評價를고처 爲替調整資金設定說이 傳한다고 時期는何如間 그러케될듯한일

期米 高寄에 反弛

前場突高 今朝는 雨天으로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果如何? 잇지 안홀가하는 商談이 多하다

物價抑壓策과 在米事情一考

北支事變의 突發과在米의 稀薄을機로한 買物이 輳集하야 當地는 先限三十三圓四十六錢인 去四月의 天井을上廻하더니 大阪은 三十五圓十九錢으로 또한去四月의 反落을告하고말엇다 要하면 去四月에 當地三十三圓三十二錢 阪地三十五圓〇七錢을 演出하엿슬때에는 最高公定價格에 接近하엿다는 條件의 賣物이 出하야 結局二個月에 亘한 繼續反落을 示하엿스며 今月의 反撥은 (一) 買過의 反動 (二) 在米薄 (三) 北支事變等을 材料로 機로한 것이오 天井을 突破한 後에는 上天候의 好順 又는 政府의 物價抑壓政策의 令嚴으로 反落한 바인데 此度의 米價는 抑壓政策을 加하기까지의 高價가 아니오 又는 正米의 實勢가 品薄으로 因한 高價인 만큼 支配할 아조 賣落地가 잇지 안홀가

土用의好天候

土用에入한 今日의 天候는 朝鮮하나 日本內地는 大阪、下關의 晴雨로 天을 示할뿐으로 東京은 好晴을 示하야 土用天候의 順調임에도 不拘하고 市場은 北支事變의 解決이 잘되지못함을 憂慮로 買物이 現出하야 反이 一、二十丁의 反撥을 示하엿다

後場採合

後場은 三十二圓六十二錢인 四丁低로 始騰한後 二節七十錢으로 四節七十二錢까지 올랏스나 採合이엇다

正米 清算高로 反高

京城堅調

現物은 依然하야 商談은 薄으로 實物이 업서 全然업스나 今朝定期高에 따라 市價十錢堅調 告하엿나 ㊂三等白米二四、五〇

仁川强硬

在米減少인때라 今朝期米高로 氣勢强하야 移出側이 積極買로 市場은 活氣를 띠어 ㊀穀良三十三、二〇 四等三、二〇 一等白米三、九〇

釜山軟化

清算의 少高로 持米側은 依然低價에 不應코 先高를 겨누고잇스나 一方 買方은 精米側의 少量買뿐이오 一般

群山昂伸

出廻는 一點이 잇섯스나 新穀物이 업고 依然 産地는 頑强을 示하고잇스니 今朝定期의 强硬과 相俟하야 市勢는 强硬 ㊀穀良三十三、〇〇 一等白米 三七五

大邱軟調

依然薄으로 市勢도 閑散하야 今朝期米의 低落을 반영하야 市價十錢低로 軟調이엇다 ㊀穀良三十三、七〇 一等白米 一三、九五

木浦反騰

在米減少에 北支의 形勢는 惡化의 비 米側은 賣止的態度가되어 商談은 皆無의 現狀이나 二十錢高로 反騰을 演하엿다 四等三、六〇 一等白米一四、〇〇

市場六感

㊑……七月中旬까지의 貿易入超는 七億을 突破하얏스나 中旬은 入超千九百萬圓으로 入超減少▲時局은 마츰내 緊迫하야 이에따라 一高一低로 波潮은 잇슬것이나 今朝의 低落과 그反撥을보라 이 市勢를 追想할수잇겟는가?▲時局이 惡化하면 低落될것으로 밋고 賣込하는것은 財界人의 樂觀態度로보아 警戒할이 조흔듯▲市勢는 未久에 大幅의 騰勢가 잇슬지도 모른다는 强氣도잇슴으로 慎重態度로 나갈일(金剛)

㊊……今日은 土用! 日本內地의 天候는 良好、그럼에도 市勢는 反高▲此는 北支事變의 解決이 잘되지못하고 漸次 悪化할 模樣▲政府의 物價抑壓이 要하면 事變이 惡化된드라도 取締等의 材料를 驚出할模樣이니 買固執 高하다 수도업을듯하고▲그反換으로는 時日이 갈사록 在米가 漸次 稀薄하야 端境期의 需米不安을 促할 模樣이다▲그러나 保合範圍에서 아즉 買餘地가 잇는것만은 事實일것도가다고云云 (華山)

今日財界 (二十日)

◆米 (單位圓) 仁川期米先限 三三、三〇 大阪期米先限 三五、三三 京城二等米一石 三三、〇〇 新標(仁川)一等 [illegible] 一斤價 [illegible]

◆株 朝新 [illegible] 鐘紡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人絹 [illegible] 綿花 [illegible] 砂糖 [illegible]

海外經濟 (十九日)

[illegible]

銀行券 (十九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大阪金利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織製品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短期賣買高 [illegible] ◆賣定代引日步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 (二十日)

▲白米(石、單位圓) 多摩錦特 二七、〇〇 一等 二六、〇〇

▲麥粉(二二斤、單位錢) 二厘四、九〇 카메리야 七、七〇

▲肥料(一〇貫、單位錢) 硫安(各種) 三、七〇 豆粕(安東丙一号)一枚 二、四五 過燐酸石灰 同 一、九五

▲織物(單位錢) A壽 一反 二、二七 中國印綢 一反 三、二七 半紀綿 四貫四〇 一、〇〇 朝鮮映綿 一二、〇〇 漢陽紗 一、〇〇

▲燃料 撫順石炭 塊 一九、二〇 使炭二六 二一、九〇 京城無煙炭一等 (二〇瓩) 一、四五

▲洋灰(五〇瓩袋、單位錢) 小野田 一、〇八 淺野 一、〇八

▲砂糖(百斤、單位錢) 白 二三、八〇 黑 一四、五〇 分蜜 一九、二〇

▲鐵物(單位錢) 西洋釘平板 一、三三 丸釘 一七、四〇 鐵線 九、六〇 丸鐵二分 九、三〇

▲海產物(單位錢) 乾明太(駄) 乾大口魚(斤) 黑고등어(手) 곽지미역(手)

▲染料(斤、單位錢) 軍人 三、七〇

▲飲料(單位錢) 麥酒 三、七〇 白鶴 一、六〇 九、八〇

▲木材(才、單位錢) 에니엘 一、二〇 紅松 一、三五 落葉松 一、七〇 杉材 一、六〇

▲人絹(碼、單位錢) 羅珠紗 文化綃

▲本綃(疋、單位錢) 毛本綃 一二、〇〇

▲牛皮(乾百斤、單位錢) 京大皮 八五、〇〇 小皮 八五、〇〇 中皮 七七、〇〇 同 六七、〇〇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現物糖(8T) 賣買中價 二三、二五錢

生糸

◆橫濱生糸 [illegible] 現物D格 八九〇圓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糸

◆大阪綿糸 [illegible]

期米 ㊅ 京城府黃金町 仁川本町 柳來恒取引店

朝 盃 取 金益證券 京城府黃金町二

期米 大 仁川海岸町

期米 東 仁川海岸町三丁目 趙俊鎬取引店

期米 福 吉村榮左エ門商店

金·銀 德 白金 高價買入 京城 德力 京城府明治町 代金引換販賣酬應 電話本局② 3939 1572 振替京城 234